

시편 1

1-50

시편 1 1~50

2018년 10월 14일 초판 발행

펴낸이 이재철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시편 1

1-50

작성

시편 1:1~6 | 정한조

시편 2:1~12 | 정한조

시편 3:1~8 | 정한조

시편 4:1~8 | 정한조

시편 5:1~12 | 최영민

시편 6:1~10 | 정인철

시편 7:1~17 | 정한조

시편 8:1~9 | 정한조

시편 9:1~20 | 정한조

시편 10:1~18 | 정한조

시편 11:1~7 | 이영란

시편 12:1~8 | 박성호

시편 13:1~6 | 정한조

시편 14:1~7 | 정한조

시편 15:1~5 | 정한조

시편 16:1~11 | 정한조

시편 17:1~15 | 이창호

시편 18:1~50 | 정재규

시편 19:1~14 | 정한조

시편 20:1~9 | 정한조

시편 21:1~13 | 정한조

시편 22:1~31 | 정한조

시편 23:1~6 | 송호욱

시편 24:1~10 | 이성실

시편 25:1~22 | 정한조

시편 26:1~12 | 정한조

시편 27:1~14 | 정한조

시편 28:1~9 | 정한조

시편 29:1~11 | 이동규

시편 30:1~12 | 유석정

시편 31:1~24 | 정한조

시편 32:1~11 | 정한조

시편 33:1~22 | 정한조

시편 34:1~22 | 정한조

시편 35:1~28 | 임용완

시편 36:1~12 | 백정수

시편 37:1~40 | 정한조

시편 38:1~22 | 정한조

시편 39:1~13 | 정한조

시편 40:1~17 | 정한조

시편 41:1~13 | 김대인

시편 42:1~12 | 강요섭

시편 43:1~5 | 정한조

시편 44:1~26 | 정한조

시편 45:1~17 | 정한조

시편 46:1~11 | 정한조

시편 47:1~9 | 김현준

시편 48:1~14 | 최영민

시편 49:1~20 | 정한조

시편 50:1~23 | 정한조



1

복있는 사람과 악인들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1~3)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6개월 동안 시편을 통해 주님과 말씀의 교제 나누며, 우리의 삶으로 시편을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나누는 새벽기도회에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면, 그 책에 대해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는데, 오늘은 1편을 먼저 살펴보고, 내일 시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고, 마지막 150

편은 시편을 담은 자물쇠와도 같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시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별명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1~3절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은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자신의 악함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구현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움켜쥐고 싶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들의 꾀(충고, 조언, 상담)는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은 인생의 목적(종착점)을 바르지 않게 정한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종착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금을 긋고서 놀이를 할 때, 금을 바르게 긋기 위해서는 멀리 움직이지 않는 지점을 보고서 그어야 끝까지 바르게 그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을 바르게 긋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땅을 보고 그으면, 다 긋고 나면 금 전체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움직이는 목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목표 지점을 바르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길(삶의 태도와 방식)은 복 있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 다름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뒤 거리를 배회하지 않습니다. 피시방과 같은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엉뚱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리를 배회하지 않는 것, 피시방에 가지 않는 것,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 하루에 매일 잠을 12시간씩 잔다면 앞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즐거워하거나, 내게 익숙한 말씀만 즐거워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구절이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성경 66권 전체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선입견을 버리고,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고, 말씀을 받은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내가 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요즈음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을 때보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자생한, 스스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심어준 나무입니다. 즉 심어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삶입니다. 친한 친구가 1달 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내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은 있지만, 혹 나도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함께 돌보면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께서 1달 여행을 떠나시면서 내게 강아지를 부탁하면, 친구가 강아지를 맡겼을 때와는 부담감의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나’라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냇가에 심어주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것입니다. 결코 낭비하며 살 수 없고, 의미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냇가’가 ‘단수(單數)’가 아니라 ‘복수(複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동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보인 곳이 이내 말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심어진 곳은 여러 개의 시냇가가 겹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냇가가 마르면, 저쪽 시냇가에서 물이 흐르고, 저쪽이 마르면 또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심어진 나무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곳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나무는 “철을 따라(문자적 의미는 ‘그것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1년 내내 열매 맺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열매로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처음부터 사과나무로 평생을 살고, 배나무는 평생 배나무로 살아 배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크기의 열매, 어떤 품질의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크고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과정에 신실하게, 삶의 색종이를 잘 붙였다는 의미이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는 나중에 맺지만,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라는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악인들은...(4~6)

(4~5)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바람에 난다’는 것은 곧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훑날려 다니는 것입니다. 심겨지게 되면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훑날리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얼핏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것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또 행복한 것과 행복하게 보이는 것 역시 동의어가 아니라 반대에 가깝습니다. 살아카다보면 열매가 주렁주렁하여 성공한 것처럼

럼 보이는데, 실상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열매들은 나무에서 자라서 맺힌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실로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또 행복하게 보였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한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인데, 시편 기자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없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은 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하다

‘인정하다’의 의미는 ‘알다’, ‘보호하다(watch over)’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심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이 시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역설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며, 우리의 삶이 오늘의 시편, 시편 1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을 통해 주님과 말씀의 교제 나누며, 우리의 삶으로 시편을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들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악인들의 피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 악인들의 피,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공한 듯이 보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에 띄지 않는 다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짐과 같은 역설의 진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님을 잘 새기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금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들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4. 나는 믿음의 시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노래를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1-2줄이라도 나의 시편을 기록해 보십시오.

2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1~12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개요

시편의 구조 : 150편으로 된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나뉘는데, 모세오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비견되는 제1

권은 1~41편까지 41편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8편입니다.

(시8:4~5)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

출애굽기에 비견되는 제2권은 42~72편까지 31편으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51편,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 51:10~11)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레위기에 비견되는 제3권은 73~89편까지 17편으로, 예배와 성소에 대해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시73: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시73: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대

민수기에 비견되는 제4권은 90~106편까지 17편으로, 인생

광야에서의 순례를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05편, 요셉에 관한 시입니다.

(시105:17~19)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신명기에 비전되는 제5권은 107~150편까지 44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19편입니다.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데 모두 말씀을 노래합니다.

(시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의 기자와 기록연대 :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전체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12편, 그리고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 지파의 후손 고라 자손들이 11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아삽, 고라 자손들이 모두 동시대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 연대순으로 분류할 때 시편을 다윗 시대에 시편을 두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시대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10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는 모세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대보다 약 450년 앞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편 137:1의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는 바벨론 포로 시대 다윗의 시대보다 약 450년 뒤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세 때부터 포로 시대까지 약 9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101편이고 나머지 4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즉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은 ‘기록자 미상’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작사자, 작곡자가 미상인 곡이 있습니다. 예전에 찬송가에는 작사자, 작곡자가 미상인 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새찬송가에 작사자, 작곡자 미상인 곡들이 상당히 빠진 것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작사자가 누구인지, 작곡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곡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송의 작사자도 되고, 작곡자도 되어서 훨씬 감동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의 상황과 함께 묵상하면 감동이 깊지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시편의 기자가 될 수 있어서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의 종류 :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로 된 노래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그 가사 중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탄원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와 ‘감사시’도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내용(제왕시)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슬기로우심을 드러내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시’도 있고, 심지어 악인들을 벌해달라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시편이 특이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 곧 찬양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우리의 시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몸부림과 애씀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는 시편(찬양)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쁜 것임에도 아이러니하게 인생이 잘 풀리거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시편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이 갑자기 약해져 병상에 눕게 되거나, 사업이 꼬여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여호와 는 나의 목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 의 집’이라는 말이 폐부 깊숙이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실패자의 하소연이나 푸념, 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실패를 발판삼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이고, 성경 1189장에서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고(117편, 2절),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고(119편, 176절), 한 가운데 장(118편)도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 쥐고 그 가운데를 펼치면, 그곳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한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1~6)

(1~3)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꿋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명하자, 세상의 왕들이 그 계획을 뒤집기 위해서 반역을 모의합니다. 그 세력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신 것을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벗어 버리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입니다.

(4~6)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인간들 중에서 힘을 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독립만세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비웃으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소롭다”입니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왕
을 직접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에덴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 중
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네 삶의 주인은 네 자
신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언제나 하
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
각하곤 합니다. 즉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
하십니다. “아니!”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삶, 영원에
잇댄 삶을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땅에 영
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제왕시 또는 메
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의 왕의 통치(7~12)

(7~9)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삼하 7:4)”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가까이는 다윗에게 행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멀리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0~12)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의 왕들이 영원한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약속하
십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
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한다고 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힘에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말
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역
설의 진리를 입증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
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한 중간에 있듯, 우리의 삶의 한 중간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과 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서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편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며,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자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시편은 무엇입니까?
2. 지금까지의 삶에서 시편이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3.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심을 가장 또렷하게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나만의 시편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3

누워 자고
깨었으니

시편 3:1~8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
 으니이다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
 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
 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데다 (셀라) 5 내가 누워 자
 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
 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제는 그 시를
 노래한 시인의 상황과 마음을 깊이 살펴보게 해줍니다. 오늘 시
 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
 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만 8명이고, 다른 부인들과 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수였는데, 이름이 있는 사람만 21명(19남 2녀)이고, 첩들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내는 대부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공주였던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윗이 처음 결혼한 여인인, 사울의 딸 미갈(공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후에 미갈은 다윗에게 천한 사람들처럼 살을 내놓고 춤을 추었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하지 않았고,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마아가었는데, 그녀는 그술 왕 달매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하14:25)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배우도 외모에 대해 콤플렉스를 1~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모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아

버지 다윗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가야 했고, 감람산으로 향할 때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하 15~18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시편 3편의 배경입니다.

시인의 탄원(1~2)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쿠데타를 당하고 나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삼하15:12b~13)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기를 4년 동안 계속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고 생각되자,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삼하16:15). 본래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은 제갈량이나 정도전에 비견될 만한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였습니다. 그도 압살롬에게로 붙었습니다.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여 압살롬에게 붙은 것도 있지만, 대적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나봐.”, “이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등등의 수군거림으로 인한 놀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같은 것이 다윗을 훨씬 더 많이 짓눌렀습니다.

욥이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힘든 일이었고, 한 순간에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것도 마음이 짓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엘리후의 무차별적인 정죄의 말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욥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과 달리 다윗이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

는 것은 읊은 자신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몰랐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교사하고, 그녀를 아내로 데려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4절, 8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 39개의 시편에 68번이 나오고, 하박국서에 3번 등 모두 성경에 71번이 나오는데, 음악적인 지시어임이 분명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쉬어라”, “올려라”의 의미로 여겨집니다. 아마 예배 시에 시편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고,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등 2절에 3번이나 대적이 많음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으로 인해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셀라’ 이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인의 확신과 신뢰(3~8)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들어서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기골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무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싸움을 돋우는 자’라고 했는데, 영어성경에서는 ‘champion(챔피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싸움에 관한 1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앞서는 고양이 앞의 쥐와 같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방패 든 자’가 까지 있었습니다.¹⁾ 마치 스페인의 투우사들이 성난 소가 돌진해 올 때 벽 뒤에 숨듯이, 개인 경호원 같은 병사가 커다란 방패를 들고서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물매에 돌을 담아 돌려 날리니, 그의 기골장대함도, 갑옷도 소용이 없었고, 특히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에게도 쿠데타를 당하여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 나아가 지금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지만, 머리를 들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 그 창 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삼상17:7)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의 신앙이 참 크게 여겨지는 것은 지금 쫓겨 다니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셀라 이후, 다윗의 목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5~6)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현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 왕국의 미래에 대한 놀림이 너무 커서 잠을 자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자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아침의 시편’ 또는 ‘아침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천만인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만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평정심을 되찾

아 계속 노래합니다.

(7~8)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 관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환궁(還宮)하기 위하여, 지금 있는 600명의 100배, 1000배 쯤 되는 군인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쳐 주시고, 이를 꺾어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다윗 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 견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 단수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자리가 피난으로 불편할지라도, 다윗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 자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준 자리임을 알아, 오늘도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으로 살아 역설의 진리를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을 가야하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적과 자신을 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노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함으로 암울한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고비 고비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1인칭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함으로 역설의 진리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 도망을 가야 했을 때, 대적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나에게 반대자가 많다고 여겼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등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3.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안히 눕고 일어날 수 있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4.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눅고 자기도 하리니

시편 4:1~8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 내 의의 하나님이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눅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인의 호소와 권고(1~4)

오늘 본문 시편 5편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 어떤 사건의 전후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은 시편 3편과 동일

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연주 방식으로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 분류했는데, 이는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와 현악기의 연주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1) 내 의의 하나님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의무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거의 제가 모셔야 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 그리스도인도 아닐 뿐더러,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제게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품어주심의 사랑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이 시편이 여러 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 기록했다면, 다윗은 그런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곤란’의 문자적인 뜻은 ‘좁음’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동굴 속이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넓다’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다윗이 지금 거처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이 좁지 않고 넓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0평 집에 살다가, 가세가 기울어 20평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집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잠잘 곳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등 붙일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진심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면, 집이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내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베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 시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것이라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헛된 일’이고,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압살롬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이 되게 하는 것이며, 헛된 일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주님 없는 삶, 주님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폐부 깊숙한 곳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없는 지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것이었는지, 그 삶이 얼마나 텅 빈 것이었는지, 뭔가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 돌아보니 그 삶이 전부 거짓된 것이었다고 자인(自認)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삶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3~4)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경건한(신실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만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는 외모와 신장으로는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내모(內貌)_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른 경건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려고 하며,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압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경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확신과 기쁨(5~8)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청산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표어와도 같습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예배의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7~8)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2011년 6월부터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제 일정과 메모 등을 모두 스마트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정을 관리하는 작은 다이어리와 메모를 기록하는 큰 다이어리를 사용했는데, 해

마다 11월 경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다이어리를 구입하곤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두 다이어리에 표지에다 성경구절을 몇 개와 제가 좋아하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구절은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을 기록했고, 또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도 써 놓고,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일깨워주는 말씀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좌우명처럼 여기는 글귀도 써 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써 놓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4:7~8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써 놓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구절을 읽을 때면 기분이 좋았고, 미소가 그냥 지어졌습니다. 한동안 지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는 상황이라면, 분노와 절망을 넘어, 자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다윗이 누리는 기쁨이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추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후, 그 기쁨을 감사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켰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수 후에 맞이하는 명절이 추석(한가위)입니다. 지금도 극심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

로는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잘 삽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왕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누리고 살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과거 속담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추수의 기쁨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쫓겼다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조건 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쁨의 근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있게 하신 삶의 현장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넓고 깎과 안전한 삶이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왜

나하면 그 역설의 삶이 진리의 삶이요, 영원에 잇대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린 의로움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숨어 있어야 하는 처
참하고도 서글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몸부림을 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상황의 좋고나쁨에 감정의 파도
가 높고 낮았음을 회개합니다. 바라옵나니 환경에 함몰되어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
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보다 외적인 풍성함이 있
으면 더 행복하고,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해줄 것이라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식과 포도주로는 우리의 허황된
욕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쫓겨 다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있
게 한 현장임을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도 그리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
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어’라며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인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어떻게 구현해 가고 있습니까?
3. 내가 “이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 다윗처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삶과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역설의 진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시편 5:1~12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8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 하나님이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피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1~6)

오늘 본문 시편 5편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는 시편 3편, 4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묵상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탄원합니다.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

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그런 한나를 격분시켰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원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말할 힘조차 없어서 입술로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나의 대답입니다.

(삼상1: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도록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었고,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마음이 괴롭고 슬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와

서 쏟아 놓았습니다.

(2~3)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의 일터를 다스려 주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밤을 보냈고,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주신 하루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 46:5)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7~12)

그렇다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
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 이것은 헤세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
여,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림으로 내 삶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
복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크신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때로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더
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
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삶에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기뻐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세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세 단어는 뜻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며, 기뻐 뛰며 의기양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주께 향하는 기쁨이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주를 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피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때마다 안전함을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

호를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마지막 기도의 유익은,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12)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드러지는 우리의 기도는 소망과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 갑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마음이 괴롭고 슬펐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2.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4. 시편 5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1~10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뺨이여 잡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시편 6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덟째 줄에 맞추었다는 것은 낮은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였음을 의미합니다. 낮은음의 노래는 탄원을

담은 노래에 어울립니다. 결국 이 표제는 다윗의 시이며, 찬양대 인도자의 지휘를 받는 시로, 강력한 탄원을 이 시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표제의 정보로 시편 6편을 탄원시로 분류하지만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이 시는 다른 6개(32, 38, 51, 102, 130, 143)의 시와 더불어 참회시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 현대의 많은 학자들도 참회시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이 시의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한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참회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참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시에는 참회의 관점이 녹아 있고, 이 시는 참회시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탄식(1~7)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는 먼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사정 때문인지, 어떤 병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곤경으로 인해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먼저 그는 육

신에 대하여 수척(瘦瘠)해졌다고 말합니다. 수와 척, 두 글자 모두 여위다 혹은 마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척은 병상에 드러누운 모양을 보여주는 병질 엄(疔)과 등마루 척(脊)이 합하여 뼈와 관련된 어떤 고통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뼈 속의 진액까지도 모두 말라가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수척함은 단순히 핏속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라감을 포함해,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모두 잃은 절망적인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기자는 수척해짐과 함께 뼈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뼈가 떨어지는 정도의 고통이 얼마인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해 본적이 거의 없는 정도의 고통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절박한 상황은 이러한 육신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더 있습니다. 뼈를 넘어, 이제 영혼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3절). 은유적으로 사용된 영혼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이제 영혼과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극심해서 이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져,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될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표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1절에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

주 조심스럽게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어떤 죄에 대한 것이라 말하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죄의 특징정도를 생각해본다면, 자기의 욕심에 기인한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본인이 왜 이러한 고통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자신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여 호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인하여 자신을 건져달라고 고백합니다(4절).

여기서 사용된 사랑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긍휼을 의미하기도 하고,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이나 계약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한다한들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계약에 의거, 자비의 언약에 의거해서 내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 구원하소서라고 절실히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간청의 이유는 죽은 후에는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올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즉 죽으면 돌릴 수 없기에, 살아 있는 지금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고통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고, 쓰러져 누운 잠자리는 멈추지 않는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울다 울다 결국 눈까지 잘 안보여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통이 참으로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8~10)

고통의 벽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다윗이 8절부터는 반전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시인의 탄원이 확신의 어조를 통해 분위기를 바꿉니다. 지금껏 올라보니 다윗은 눈이 잘 안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낙담은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에 대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다윗은 이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되며,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갑니다(9~10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완전한 확신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해석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혹시나 지금이 아닌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된 죄로 인하여, 주의 분노와 진노를 샅습니다. 그리

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의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언약적 사랑에 기인하여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끝은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리합니다. 우리도 욕심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과 상황, 그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기지 못해 죄로 이어지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한발자국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변의 사람과 상황이 더 잘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 그 욕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별세를 묵상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사람으로, 섬기고 나누는 역설의 진리를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욕망을 따라 황제의 도시를 좇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가 다윗이 말하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참회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종래에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우리 각자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물러가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난의 자리 앞에서 탄원을 넘어 참회함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 곧 참회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도리어 구원의 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꺾으심으로 우리의 앞에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물러가는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진 사람으로, 이 땅에 섬기고 나누는 역설의 진리를 입증하는 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루의 선행자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모자이크판 인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참회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봅시다.
2. 삶 속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던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있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3. 그러한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마저 보지 못하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지 묵상해 봅시다.
4. 기자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과 같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갈 나만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묵상해 봅시다.
5. 지금 주변에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가 있는지, 역설의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묵상해 봅시다.

7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시편 7:1~17

[다윗의 식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1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 견저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이런 일을 행
 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
 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5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
 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6 여
 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
 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7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
 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
 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 악
 인의 악을 꿋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
 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
 나님께 있도다 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어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14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어 재앙을 배
 어 거짓을 낳았도다 15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

리에 내리리로다 17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어 지존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표제를 통한 배경 이해

오늘 본문 시편 7편은 표제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식가온입니다. ‘식가온’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시편 7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단어가 ‘망황하다’, ‘비틀거리다’의 의미에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고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만가(輓歌, elegy)_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베냐민인 구시’라는 인물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귀화하여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잡족(출12:38 참조)’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함께 나왔던 이방사람의 후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울입니다.

니다. 사울은 다윗의 주군이자,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자,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인 사울’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베냐민인 구시’라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시가 사울이라면,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특히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또는 26장의 하길라 산에 있을 때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경우에서 모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가려 뽑은 군사 3,000명을 대동하여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오늘이 원수를 넘겨주신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겂옷자락만 가만히 베고서, 굴 밖으로 나와서 외친 다윗의 말입니다.

(삼상24:14~15)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사람의 뒤를 쫓으십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함은 평소에 자기 스스로를 그

렇게 많이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윗이 십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곳으로 사울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아니라며, 밤에 잠들어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삼상26:20)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 한 마리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함(1~5)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많이 쫓겨 다녔습니다. 시편 7편이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전개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이룰 수 있습니까?”라고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하나

님이여”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지라도 그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다윗 됨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했고, 왕위에 올라 온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기 위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을 망각했을 때, 그는 밋세바 사건의 주범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의 고백입니다.

(단6: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빌3:8a).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1인칭이었습니다. 2인칭, 3인칭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1~2)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백수의 제왕’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보다 큰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들소 등도 화가 나면 사자보다 무섭지만 그것들은 다 초식동물이라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다릅니다. 사자와 같은 크기의 동물은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들은 배가 고프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공격할 때 목을 먼저 물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를 그림책에서만 본 사람과 동물원 우리에게 간혀있는 것을 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과는 경험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양 떼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잡은 먹잇감을 어떻게 찢어서 뜯어 먹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사자와 같다고 말함은 그가 정말로 절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나를 찢고’에서 ‘나를’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 목숨을, 내 영혼을’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3~5)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자신의 삶이 올발랐다고 호소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와 십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갖고 나와서는 사울의 신하에게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악인들의 운명(6~17)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8)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역성경공부에서 느헤미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총독이 받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5: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두세 배로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흔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합니다(6절). 열로써 열을 다스림을 표현하는 사자 성어가 ‘이열치열(以熱治熱)’입니다. 6절을 내용으로 하여 노로써 노를 다스림을 뜻하는 말로 조어(造語)하면 ‘이노치노(以怒治怒)’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지켜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분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7)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지금의 삶의 고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며,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진지하고도 겸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삶을 온전히 구현해 내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구현하는 삶이며, 오직 주님만 또렷하게 보이는 삶입니다. 이 은총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자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루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대적을 물리쳐주시기를 요청하기보다, 자신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잘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구현하게 하시고,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살면서 나를 힘들게 또는 고통스럽게 했던 일이나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2. 다윗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그리고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나는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혹 그런 일을 다시 겪게 된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겠습니까?
3. 내 인생에서 ‘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는 삶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8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1~9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딿에 맞춘 노래]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1~3)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딿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가 붙은 시편은 8편과 더불어 81편과 84편도 있습니다.

‘깃뒹’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 풍의 행진곡 리듬일 것이라 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리듬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리듬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깃뒹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 이 시편이 포도를 따는 결실기에 불렀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한지 간에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만 보아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걷거나, 곱게 단풍이 진 산길을 걸을 때, 이구아수폭포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광경을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고, 그 장관에 잠시 취할 수 있지만,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에서 ‘아름답다’는 ‘위대합니다’ 또는 ‘장관(壯觀)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주위 사방의 자연을 보고서 그 자연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장관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

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맞본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 떼를 돌볼 때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삶,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으로 세울 가문을 사울의 집안이 아닌 이새의 집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가 기름부음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모두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외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도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첫째에서 일곱째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막내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깊은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구아수나 나리아가라 같은 거대한 폭포가 있거나, 만리장성이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대적’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어린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린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18:3)”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 해져라”이거나, “어린 아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아주 어릴 때 도 악함이 있고, 이기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능력, 재능 등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에게는 농사를 지을 능력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능력도 없으며, 직장 생활로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이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절의 말씀이 다윗에게 온전히 적용되었던 때 가운데 하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인과 소년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당시 평균 신장으로 하면, 절반 남짓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무기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들의 칼이나 창, 활의 공격을 전적으로 막아 내기 위해서 방패를 든 병사까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매 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싸움에 관한 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린 아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2016~17년 2년 동안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서 섬겼습니다. 순교자기념관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밤에 마당으로 나오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보이곤 했습니다. 제가 별자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각각의 별들의 이름은 몰랐지만, 별들을 보고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

습니다.”라고 되뇌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을 찾아보려고 하곤 했습니다. 별뿔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하였고, 보지 못했던 새 별이 나타나면 어디엔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별들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계를 창조하신 하나님(4~9)

이러하듯 하나님과 인간의 크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지, 가장자리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지구 외에 다른 별에도 생

명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4절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가장 작고 형편없는 자신을 깨닫는 순간, 가장 크고도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작은 숫자로 1이나 2가 쓰여 있고, 아래를 보시면, ‘또는 천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성경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개역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바르게 번역된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고는, 마음이 찢려서 도저히 기록할 수 없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이라는 숫자에서 1을 빼든, 1억을 빼든, 억의 억만 배를 빼든 무한은 그대로 무한입니다. 무한에서 숫자를 뺐다고 유한이 되면 그것은 무한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최상으로 높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꾸중하면 반발하며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릅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속이 상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 같이 말 안 듣고, 너 같이 엉뚱한 짓 하며 공부 안 해도 기른다. 이웃집 아이면 절대로 안 키운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자녀의 모습 속에는 부모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6~8)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일에 부끄러움과 놀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잘 못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자연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다윗의 마무리 고백입니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의 반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의 감탄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 전체가 감탄문처럼 여겨집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시편의 고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아주십니까?”라고 삶과 신앙으로 시편을 쓰는 시인으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이 시편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지만,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에 어두워 물질만, 또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만 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높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자리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잊지 아니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역설의 진리를 행하는 삶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현실 세계를 보면서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대자연이나 장관을 보고서 하나님을 깊이 느낀 적이 있었다면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2. 다윗은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일(사람)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신앙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3.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탄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신앙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탄문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4. 다윗처럼 자연 속에도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9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9:1~20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뭍벤에 맞춘 노래]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
 이다 2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니 3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4 주께
 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
 다 5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이다 6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이다 7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
 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이다 9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이다 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
 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1 너희는 시
 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이다 12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3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
 소서 14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
 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5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
 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엷혔도다 (히가온, 셀라) 17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18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9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심판의 찬미(1~8)

오늘 본문 시편 9편과 내일의 본문인 시편 10편은 본래 하나였다가 2개로 나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히브리어 성경과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이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한 ‘별게이트 성경’에는 모두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9편에는 표제가 있는 반면에, 10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9편과 10편의 내용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자입니다. 거의 2절씩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시(漢詩)는 끝자리의 운자를 맞추지만, 히브리 시는 첫 자를 맞추곤 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는 알파벳 순서로 된 시편이 모두 8개가 있는데, 첫 시편이 9~10편이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9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76절이, 8절씩 22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

다. 즉 시편 119편 1~8절까지 8절은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인 ‘알레프(א)’로 시작되고, 9~16절까지 8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ב)’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22번째 알파벳까지 하면 176절이 됩니다. 이러한 시를 ‘알파벳 시편’이라 부르기도 하고, ‘답관체 시편(Acrostic Psalm)’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를 쓰는 이유는 시편을 좀 더 잘 외고, 가르칠 때 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에 여러 가지를 외울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공부를 할 때, 사사시대의 12사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과 같이, 시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못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랍벤’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랍벤에서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막내아들의 이름이 ‘벤-야민’입니다. 그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벤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벤허가 ‘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못랍벤은 ‘아들의 죽음’이란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NIV영어성경은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To the Tune of the Death of the Son)’라고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1~2)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한
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모
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고 다짐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무엇
인지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
을 좋아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행하심)를 노래하는 것이
고,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다.” 물론 노래한다
는 것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다윗의 찬양과 경배가 되는 셈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 치유자이십니다”, 또
인생의 질곡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제 삶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런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형편없는 나
에게도 한결같이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
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3~6)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원수들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정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세상적으로는 재미없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 줍니다.

또한 이방나라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원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츠지 않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을 무너뜨렸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9~20)

(9~10) 여호와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신

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심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발발하면, 전후방이 따로 없고, 높은 곳 낮은 곳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로 공격을 하거나 대포나 미사일을 날리면 높은 곳에 있어도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달랐습니다. 높은 곳의 요새는 전쟁에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된 요새는 자연 지형에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깊이 압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시편 27:10)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적은 없지만, 혹 그런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14)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었지만,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건져올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 짐을 치던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와 박수가

아니라 심한 매질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행16:25).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합니다. 바울 일행은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감옥 안이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찬송을 드렸다는 것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진심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수용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어, 그 집안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악인의 심판을 기원하며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19~20)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지금 다윗의 기원처럼 시편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악인을 벌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① 그것은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악인으로 인해서 그만큼 처절하고 고달프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고통스럽다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옴의 친구와 같이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신앙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②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삼키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신의 대적 많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시3:1).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서도 압살롬과 그와 함께 한 무리들을 내 손으로 해치우겠다고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시절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번은 겔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또 한 번은 머리맡에 있던 병과 칼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되는 일도 많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삶으로 쓰는 시편은 우리의 인생 지도를 은혜와 섭리의 지도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색종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은총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과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며,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은 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를 수문 앞 광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살아갈 뿐 만 아니라, 매일 나의 시편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2. 최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는 무엇이었습니까(목소리로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것도 포함)?
3. 최근에 통과해야 했던 삶의 질곡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역설의 진리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시편 10:1~18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7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 그가 구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1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12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

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4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15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6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어찌하여... 어찌하여(1~11)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이 9편과 연결된 것이라면, 이 탄식은 다윗의 한숨입니다. “어찌하여?”는 다윗만이 내뿜는 탄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왜?”라고 시작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의 기도에 “어찌하여?”나 “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와 방법과 우리가 정한 때와 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삶과 신앙이 힘듦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멧돌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곡물은 확실하게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됩니다. 한편 악인의 언행(言行)이 소개됩니다.

(2~4)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풀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련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하셨지만 악한 자는 ‘심히 압박한다’고 합니다. ‘심히 압박하다’는 ‘불태우다’ 또는 ‘끝까지 추적하다’입니다.

악한 자들은 가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커녕, 불에 태우면 모든 것이 소멸되듯이 가련한 사람을 싹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영화에서 종종 보는 것처럼 악덕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고서, 고리의 이자를 물리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며, 끝까지 돈을 받아내듯이 악한 자의 삶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의인(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기중심적이라면, 의인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또한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시고, 탐욕을 버리고 진리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듣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벌을 줘 보라고 해!”라고 거친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오만 방자함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

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합니다.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여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부르게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7~10절에 소개됩니다.

(7~10)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꾸려 엮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나이다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 기만, 폭언, 욕설, 악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내뱉은 말 중에서 악담, 거짓말, 욕 등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이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는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수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많이 혼났지?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욕은 빼고 말할까? 함께 말할까?” 친구들이 답변했습니다. “욕은 빼고 말해봐!” 아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악인들의 언어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악한 것은 빼고 말할까? 아님 함께 말할까?” “빼고 말해봐.”, “그럼 아무 말도 안했어!”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말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끌고 가고, 불쌍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말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끌고 가고, 불쌍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갑을관계’에서 갑 중에서 갑인 사람이 을 중에서도 을인 사람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다윗)이 “어찌하여”, “어찌하여”를 반복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12~18)

악인들로 인해서 왜곡과 불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판을 치는 듯한 세상이 된 것 같이 느낀 시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12~13)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옵소서’라고 읊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앉아계시기만 하시고, 즉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옵소서’라고 호소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리고 계

시는 것처럼, 즉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을 베풀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찌하여!”가 다시 나왔습니다. 시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 그 때가 아닙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악인이 말하길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14~15)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값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인이 “주님께서 보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뒤죽박죽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거나, 보셨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계층인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면, 더욱이 그 일을 ‘벌써부터’ 도우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내실 수 없을 때까지 찾아 달라 요청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적폐청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100%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적폐적인 일인지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가 적폐인지 아닌지의 구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100%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서 꾸밈 수도 없습니다.

(17~18)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인의 간구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의 소원을 이미 들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들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격인 고아와 을 중에 을인 사람인 압제 당하는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0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탄원시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같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오늘 본문 중에서 고르면, ‘어찌하여’입니다. 늘여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에도 어찌하여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탄원은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주님께서 보셨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원시는 “어찌하여”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사이에 시인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어찌하여”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함으로써, 어찌하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를 바라보는 역설의 진리의 삶,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어찌하여”가 참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과 탄원이 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로 고백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만 수도 없이 외치지,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답변을 잘 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사회에도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사회가 겁과 을이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고, 건강하게 번성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오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덜 주어졌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존과 건강한 번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니 나 자신이 먼저 섬김으로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라고 기도를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2. 많은 힘을 행사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면, 언제
였습니까?
3. “어찌하여?”로 시작된 질문이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로 응답된
경우가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4. “어찌하여?”에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라

시편 11:1~7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도다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여호와께 피하였거늘(1~3)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 안에서 인생의 모자이크판을 채워간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가 성경에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말년까지 거의 도망자의 삶으로 묘사할 정도입니다

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윗을 보고 겁에 질린 친구들은 안전하다 생각되는 산으로 다윗이 도망가길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그의 고백처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해치려는 적의 표적의 대상이었습니다(2절). 다윗은 자신이 표적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피난처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심연의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산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어떤 환난도 견디게 해 줄 것 같은 산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다윗은 안전해 보이는 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은 친구들은 다윗이 적의 손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다시 유혹합니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터’는 국가의 기강,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기초가 바
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법과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다 쓸모없게 된다는 의미입
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
으므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기를 간절
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과 무기력함을 깊이 느끼는
상황이었으나 절망과 무기력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
님께로 피했습니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4~7)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내재하심과 동시에 모
든 인간들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피난처보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고백
합니다. 이전까지 다윗을 감싸던 절망도, 무기력도 벗어 던진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심을 깨닫고 불
안으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였습
니다.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시선이 아니라 참

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인생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감찰하시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한’은 ‘분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의 인간됨을 세밀히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언제나 살펴보시고 알아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하신다고 노래합니다.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가려내시고, 헤쳐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금속을 불로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큰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 모든 찌꺼기가 걸러지고 정련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어 악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케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멸망이 오는 줄도 모르고 죄악 된 세상에서 살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바람’이란 팔레스타인 남동편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바람은 모든 초목을 다 메마르게 합니다. 지난여름 한 낮의 더위에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자연 재앙입니다. 악인에게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임할 불과 자연적인 재앙까지 겹치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뜻으로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형벌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악인들의 소득입니다. 이 잔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은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마셔야 하는 필수과목입니다. 이 잔을 내리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땀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은총의 가정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는 정직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후손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총의 가문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부모를 통해 신앙을 이어가는 자녀들 또한 일평생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 삼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가정이 오직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호와께 피하기보다 세상이 안전하다 정해놓은 피난처로 도망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2.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곳이 내게 어떤 안전을 제공하였습니까?
3. 내가 딛고 서 있던 땅이 무너지는 듯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때 나는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4.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히 감찰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5.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라고 합니다(7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뵈고 있습니까?

Help, LORD.

시편 12:1~8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5 여호와의 말씀에 가
 려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
 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 여호와의 말씀
 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여호와여 그들
 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 비열함이 인생 중
 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인의 탄원(1~4)

본문의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
 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덟째 줄에 맞춘’으로 번역된 원어는 **שְׁמִיגִית**(**함쉐미트**)입니다. 이는 성경에 총 세 번 기록되었는
데, 시편 6편과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 21절입니다.

(대상15:21) 맛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므네야와 오벤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역대상 15장 21절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드리는 노래의 각 부분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세우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חַטְשֵׁמִיט (핫쉐미니트)를 ‘여덟째 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음악적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용어가 여덟을 의미하는 원어 ‘쉐미니’에서 유래하였음을 토대로 여덟 개의 현을 가진 악기 또는 남성들이 부르는 저음. 제8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시를 지휘자 세위 חַטְשֵׁמִיט (핫쉐미니트)에 맞추어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에 맞춰 부르게 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적 요소는 그 효과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가감 됩니다. 다시 말해 חַטְשֵׁמִיט (핫쉐미니트)가 시의 의미를 보다 호소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호소력 있게 전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문장을 구성에 따라 독자는 상황의 정도, 즉 사안의 긴박함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1절을 구성하는 앞뒤 문장을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오니 여호와여 도우소서’

의미는 같지만 상황의 긴박함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원어에는 ‘도우소서, 여호와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원어와 같은 어순으로 번역된 영어성경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Help, LORD,’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 우리의 첫마디는 분명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에 대한 이유 내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이어집니다. 문장의 구성을 통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긴박한 탄원의 이유를 대구법을 통해 나열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자는 하나님을 중심(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서 서술어의 시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지며, 없어지나이다’로 번역된 원어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이미 끊어졌고, 현재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2절의 서술어 ‘말하는도다’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백성

들은 계속해서 곤장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거짓, 아침, 두 마음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거짓, 아침, 두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 진 경우와 이들이 전과 달리 거짓, 아침, 두마음으로 말하게 된 경우입니다. 어쩌면 이 두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한 부분은 거짓과 아침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대상이 ‘이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4)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악한 현상들은 이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이, 그 말씀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더 이상 피조물도 선민도 아닌 주체적 존재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신 5:20). 더 이상 십계명은 그들의 삶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돌판에 기록된 문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5~8)

(5)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시 전달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을 것이 유력합니다. 다윗의 급박했던 탄원에 하나님은 더는 보고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이제 일어나’라고 표현합니다.

새번역은 하반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 대안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6~7)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흠 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한 은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순한 말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곧장 많은 시편들의 마지막절처럼 하나님의 구원, 은혜, 보호 등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끝맺지 않고, 독자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은 마지막 절을 통해 악인이 들끓고,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이 세상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이후로 시편을 찾는 많은 이들, 결국 오늘 시편을 마주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악이 판치는 세상을 바벨탑처럼 무너트리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처럼 세상을 수장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좇으며 핍박받고 궁핍해진 경건한 사람(충실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8년. 여전히 세상은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보다 거짓말과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판을 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 쳐야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으며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좇아 살기 원한다면 시인의 첫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도

우소서.” 부모 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자녀 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참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Help, LORD.

오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줄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번의 거짓이, 잠깐의 아침이, 보이지도 않는 두 마음으로 말함이 세상에서는 지혜로 둔갑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두고 세상은 어리석다 수근 거립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모습, 아니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이심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순간순간 아버지께 도우심 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고난의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2. 주변의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을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3. 세상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며 묵상하여 봅시다.
4. 고난의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묵상하여 봅시다.
5.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거짓, 아첨, 두마음으로 말하고 살고 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13:1~6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
 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혼
 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중의 호소와 이중의 두려움(1~4)

시편 13편의 표제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지휘)를 따라서 노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1~2)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이 두 절에서 ‘어느 때까지’를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첫째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나,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아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잊힘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인생에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잊힘’은 잊는 사람이나 잊히는 사람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가 됩니다.

사람에게 잊힘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잊혀진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잊힘이 된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심각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배우나 탤런트, 가수와 같은 연예인들은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삽니

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인기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인기는 다른 말로 하면 ‘팬들의 관심’입니다.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연예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관심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연예인은 자신의 인생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팬들의 선플(좋은 답글)은 그 연예인의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알약과 같을 것이고, 악플(나쁜 답글)은 힘들게 만드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플,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플(무응답 답글)은 팬들의 마음의 상태와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두렵습니다.

(민6:25~26) 여호와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31:18)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얼굴을 보이신다 함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심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면하여 얼굴을 돌리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징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듯하게 느껴지

는 것이, 자신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놀려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리이까? ‘영혼’은 ‘한 인격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번민(煩悶)’의 우리말 의미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번민’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획, 충고, 방책’ 등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에 문제가 생기고, ‘저쪽’을 생각하면, ‘이쪽’에 큰 구멍이 나고, 이쪽을 막으면, 저쪽은 다 내어줘야 하고... 등등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이 번민하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마음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더욱 다윗을 짓눌렀던 것은 그럼에도 그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아스라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이 말은 다윗의 원수들이 전쟁에서 다윗을 공격하여 제압하고서 교만을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의 표현인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말은 원수들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서 자랑질을 했다는 의미보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인

정받는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이번에도 승진하지 못했어? 난 승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승진하라네? 없던 성과급도 만들어서 주고.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 “아니, 자식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험을 망쳐서 3류 대학을 갔다니 안됐다… 우리 애는 별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1류 대학을 갔는데… 괜찮아. 대학이 다야?”라고 말하며 눈초리가 살짝 가늘어집니다. 이런 류의 여러 상황들이 다윗의 삶과 신앙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3a)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어’라고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하다’는 ‘주목하다,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러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기만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은, 혹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심에도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거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주목하여 보시고 응답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눈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유를 두 가지의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4)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첫째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잠’의 표면적 의미는 ‘육체의 죽음’을, 실제 의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죽음을 느끼게 할 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러한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급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돌이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둘째로,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단지 자신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외친 말입니다.

(삼상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와 대적들이 기뻐할까에 대한 두려움은 상황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찬양(5~6)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이 우리 성경에는 ‘나는’으로 시작되지만, 그 앞에 역접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는_But I’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기도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 ‘무조건적인 은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건져 올려 주실 것을 자기 마음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놀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고 나니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다윗의 탄식과 놀림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덕(풍성함)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시보다도 고난 중에, 탄식 가운데 쓰여진 시가 더 많습니다. 기쁠 때 시와 노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도, 고난과 슬픔의 과정을 겪을 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때보다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 훨씬 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주님의 깊은 어루만짐을 경험하고서 터지는 감사와 찬양은 기쁠 때의 그것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는 노래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집을 건물에서 가정으로, 가족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간절하게 호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잊힌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주님께서 조롱당하실 것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내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와 내 자존심이 손상을 당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욕망이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됨을 위해 탄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망의 잠을 자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해야 할 이상의 것을 걱정하는 미련함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 가정에 심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복된 자녀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 중에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리이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면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3.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내게 풍성하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때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4.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1~7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부르지를 무시하는도다 5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무신론의 어리석음(1~4)

시편 14편은 13편과 표제가 동일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여진 시편은 모두 53편이 있습니다. ‘인도자’는 찬양대의 책임자(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개인들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대가 불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그 의미는 ‘어리석음과 악함,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마온 지방에 한 목장주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양 떼가 3000마리, 염소 떼가 1000마리가 되는 목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몹시도 불안하였기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수를 받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서, 양털을 깎는 때(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추수 때)에 사람을 보내서 양 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은커녕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의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 와서 다윗이 노를 누그러뜨리는 말을 합니다.

(삼상25: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중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리석은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향하여 동네 유지라 불렀을 것이고, 어르신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주인님’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발_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_나발’의 특징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_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발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나발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다’는 ‘썩다, 타락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 나발들은 행실이 가증합니다. ‘가증(可憎)’이라는 단어의 한자말은 ‘가할 가(可)’에 ‘미워할 증(憎)’을 사용합니다. 즉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미워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보기가 싫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 않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들의 삶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2~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은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레도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굶어살피셨다고 합니다. ‘인생을 굶어살피다’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생’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굶어살피다’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자연인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인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혹,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1명이라고 있는가 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 나발(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호크마(지혜의 삶)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자연인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10~12에서 시편 14:1~3을 고스란히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때나,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살았던 시대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이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언급입니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사는 것을 떡(빵, 밥)을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확신(5~7)

(5)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강조입

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큰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그 두려움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삼상18: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의 주군이자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자 사위입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위, 신분, 학력, 소유, 나이, 성별 등등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6~7)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아람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도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과 죄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가대원들이 이 시편을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를 기념할 때 노래로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이 무려 4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지도자(표제의 인도자들_성가대 지휘자)들만 해도, 24반차에 12명씩,

도합 28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찬양할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이 가득하다고 노래할 때는 마음이 많이 눌렸겠지만, 악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할 때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틀림없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도 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픔을 아시고,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과거에 흘리셨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자녀들이 흘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인, 나발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역겨울 수밖에 없고, 언제나 선을 행하기보다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을 거느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몰라 더 두려워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다윗이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 손자손녀들, 형제자매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3.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시편 15:1~5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
 며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
 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
 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
 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1~5)

시편 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과 연주 방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1절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다윗이 성막
 에 관심이 많았을 때 지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하다면 사
 무엘하 6장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언약궤가 기랴트야림의 아비
 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니 옷사가 궤를 붙들었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벰에돔의 집으로 가져가 거기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어 춤을 추었으니, 왕의 체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일로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 마음에 더 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다윗은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마치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점수가 모

자라서 물끄러미 그 학교 건물만 쳐다보는 사람의 심정이나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표가 있어서 들어간 사람을 부러워하는 느낌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①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흠 없이 완전하게 걷다’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털어서 먼지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²⁾

‘정직하다’와 ‘완전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한 생활과 부패한 길을 걸을 때 바른 길, 치우침이 없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2)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

② 공의를 실천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③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즉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어서 진실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을 우리말 관용어로 표현하면, ‘진국인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적으로 진국인 사람’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은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2절이 행하는 긍정적인 행동 3가지라고 한다면, 3절은 행하지 않는 부정적인 행동 3가지입니다.

④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저기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며 “들었어?”로 시작해서 “OO가 망했대...”, “OO가 회사에서 명퇴 당했대...”라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친구’가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친구에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⑥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 허물을 홍보하지 않는 것이라면, 비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대를 폄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표현으로 예를 들면, “OO는 오줌싸개래요.”라고 흉을 볼 때,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허물을 들추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비방을 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는 등 말과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과 관련된 실수를 저지르기도 쉽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

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사6: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모습을 뵈인 이사야 자는 이제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독백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입술(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엡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이 된 것의 첫 특징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옮기지 말아야 할 말은 자신이 그 말을 들은 마지막이 되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⑦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합니다.

이 말씀은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 즉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취하는 마땅한 행동입니다.

⑧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해롭지 않은 서원과 해로운 서원을 잘 하고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은 함부로 서원하지 않습니다. 사사 입다처럼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자기를 처음 맞아주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만큼 서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⑨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고리대금업을 의미합니다. 구 약시대에는 동족에게 높은 이율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⑩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뇌물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거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지,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야 가능하다면 우리 중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장막과 성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몸이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주님의 장막이고, 주님께서 거하시

주님의 성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된 사람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지켜가다 보면, 거기에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하여서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되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머무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성산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다가 혹 어려움을 겪게 된다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고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성산에 처음 거하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2.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지금까지 비교적 신실하게 지켜온 덕목은 무엇입니까?
4.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시편 16:1~11

[다윗의 막담]

1 하나님이어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
도다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
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
을 지키시나이다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
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
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
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나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를 신뢰함(1~4)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는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시편 56~60편까지 5편에 더 있어서,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를 가진 것이 모두 6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믹담’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추론됩니다. ‘믹담’이라는 단어가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겨서 이 시가 돌비와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곰’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황금의 시편’이라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속하다’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고 해서, ‘대속의 시편’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믹담’의 의미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든, ‘황금의 시편’이든, ‘대속의 시편’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의미는 아주 가치가 있는 시편,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돌에 새겼겠으며, 황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으며,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긴 세월동안 쫓겨 다녔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가려 뽑은 3,000명을 대동하여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닐 때도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은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자신이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여겨,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 지방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피난하여 16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만약 다윗이 거기에 숨어 지내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의 편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조국,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이 땅에는 자신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님’, ‘나의 복’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복(바라크)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선한 것, 좋은 것(토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물론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세월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고달팠던 시간들이 모두 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나타내며 아주 친밀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

게 여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존귀하게 하심을 하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품에 쫓으며 살려고 합니다. 대용품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고, 그 외에도 힘(권력), 욕망, 취미, 학문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쥐지 못하면 패배감, 수치감이 밀려오고, 잡았다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인가”하고 한숨이 쉬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불러야 할 분은 ‘하나님 대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는 나의 산업과 소망 (5~11)

(5) 여호와께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기에 당연히 유다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몫)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땅(이스라엘)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으며, 자신은 빛나는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되게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은 대제국을 건설하여 왕을 넘어서 황제가 될 수 없느냐며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며,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구역과 기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7)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송축하다’가 문자적으로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에만 훈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밤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뿔을 통해서도 일깨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뿔니다.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삶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쪽에 계시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오른쪽, 오른손 등)’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9~11)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득과 산업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몫)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소득과 산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성도님들의 몫(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줄로 재어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함께 살게 하신 가족,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구역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줄로 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다고 중심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로 재어주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신이 피할 곳이 어디인지, 누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것이 되어서 저희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과 온 백성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온 이스라엘 땅이 자신의 산업과 소득, 분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 분깃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시고,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교우님들,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2.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교훈하신 적이 있다면, 그 때가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고통 중에 드리는 죄 없는 이의 기도

시편 17:1~15

[다윗의 기도]

1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며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9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0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1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었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13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 인생길이 꽃길이나 비단길처럼 평탄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악인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준동이,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의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악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악다구니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정처 없이 숨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시편 17편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 오늘 우리 삶의 길을 밝히 비추어 줄 등불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이 없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3b절) 그를 대적하는 악인은 압제를 넘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합니다(9절).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본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

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자기의 온 힘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와 엔게디 요새를 전전할 때(삼상23~24장)로 추정합니다.

기도의 근거나는 죄가 없습니다(1~5)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혀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 주변 사람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였고³⁾, 한 번은 추격에 지친 사울과 그 군대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였습니다⁴⁾. 두 번 다 다윗의 측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삼상 24:4; 26:8)라 말하며, 암살을 권유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삼상24:4)

4)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삼상 26:7)

(삼상26:9~10)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다윗은 자신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원수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의 “의의 호소”, “나의 울 부짖음”,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중심과 지금 당하는 고통을 알아봐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정말 다윗은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주의 길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로 씨름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과연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겉으로 보일 모양새만 생각하여 처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흠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נָבַח**(레브)”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곧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외양이 아닌 다윗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사람의 진면이 확인되는 밤에 직접 방문하셔서 감찰하셨는데도 흠을 찾지 못했다는 다윗의 고백에는 울곧게 말씀 따라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이 자신감은 필부의 만용이 아니라, 말씀 따르는 삶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호소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생명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말씀 지키며, 내가 울곧게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오늘 나에게는 있습니까? 문제를 앞에 두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넉넉히 품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소개된 대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벧전 2:21)” 예수님을 닮아 마음 다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본령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_나를 구원해주소서(6~14)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함을 호소한 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6절에 표현된 대로 자신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7절처럼 자신을 “구원하시고”, 8절처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에서 “사랑”으로 표현된 “헤세드”는 일반적인 연민이나 긍휼,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백성이 백성 사이에서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곤경을 강 건너 불구하고하듯이 보시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이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의인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이들, 곧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온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 행하는 인간 군상들은 맞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그

가 가는 길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공급하시는 은혜는 강력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 그 구원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기이한”, 헤세드라고 설명했던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난 이후에 불렀던 노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출 15:1~18). 다윗은 이 단어들을 그 문맥을 따라 하나님께 사용함으로써 히브리인들을 압제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자신을 압제하는 사울을 병행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자신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을 압제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이 찢으나,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당당하게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앞세웠던 사울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다윗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단지 사울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8~9)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문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표상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도 고통 받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샅롬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대망하며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주실 수 있으며, 영원히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응답의 확신(15)

다윗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깧 때에 주의 형상으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개선되었다는 어떤 여지도 기도 중에 찾아볼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언적인 찬양이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는 처음이 아닙니다. 삶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니 은혜가 아닌 과거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기대를 품고, 묵묵히 말씀 따라 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자기 백성의 기도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늘 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겪는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 힘 얻으며, 다시금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외적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손길 의지하며 오늘도 힘을 냅니다.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어 주셔서 악인들의 준동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동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다윗이 걸었던 인생길(1~5절)을 살펴보며, 내가 미진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생각해봅시다.
2. 나는 주님께서 자신을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는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3.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의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핍박입니까?
4.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과거를 떠올리며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5.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결론으로, 구체적인 내 삶의 정황의 언어로 기도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1~50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8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솟아 피었도다 9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10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11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뻑뻑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흡으심이어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5 이럴 때에 여호와와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16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7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18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20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1 이는 내가 여호와와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5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27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시로다 31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도다 35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
 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37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
 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39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
 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
 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41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
 이다 42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
 이 쏟아 버렸나이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
 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어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
 하리로다 45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
 46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
 일지로다 47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
 종하게 해 주시도다 48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
 지시나이다 49 여호와여 이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
 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
 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에게로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
 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

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흡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와 사무엘서의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해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고난, 하나님의 움직임(1~19)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단어에 '나의'라는 수식을 계속 붙여가며,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히 경험한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과 같은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주심과 또 전투에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되어주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시망의 줄이 나를 엮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고 표현합니다(4~5절).

다윗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밀려드는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절망과 막막함 또 죽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벽보다도, 또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여기는 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내어 찾아야 합니다.

(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19절이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움직이시자 땅이 흔들리고, 산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뿐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하늘도 진동합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잘 그려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게 우리 인생을 관망만 하지 않으

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 하여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시적이고도 한계적인 시야를 넘어 궁극적인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18절의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되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삶과 고백(20~31)

20~31절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주님의 도를 지켰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해 보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완전하심, 깨끗하심, 등불 되심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 만족, 평안, 격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상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상을 맛본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

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31절). 어떤 상황 중이라도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본분대로 살아가면,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윗의 감사 찬양(32~50)

다윗은 32~42절을 통해 주님의 도를 지켜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고 빠르게 하였고, 강한 팔을 주셨습니다. 방패를 손에 들려 주셨고,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다윗에게 남은 것은 승리뿐이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절대 중단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승리’라는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늘 인지하면, 설사 절망의 그늘이 드리운다 하여도 절망과 낙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상황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다윗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은 그의 왕권을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로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 승승장구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견게 하시는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을 때, 우리 입으로 또 삶으로 분명히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으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를 맛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승리’를 늘 인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주는 자만이나 낙심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순종함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2. 절망과 막막함에 놓인 다윗이 선택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낙심의 상황 앞에서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4.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5.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어떤 결단으로 이어지게 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시편 19:1~14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1~6)

오늘 본문 시편 19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짓기는 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이 시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1~6절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7~14절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땅과 바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

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대략 추정할 뿐입니다. 사실 그 추정도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바닷속에는 사는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바다 식물은 얼마나 되는지 역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미지의 세계가 하늘입니다. 그래도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각 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면적도, 바다의 깊이도 현대 과학의 힘으로 그 넓이와 깊이는 다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높이 끝이 어디인지, 하늘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궁창(우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말 외에 더 덧붙일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2~4a)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낮이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 지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의 연구로 어떤 신비한 자연현상을 설명들을 때 정

말 놀랍습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초식동물이 풀을 뜯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등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오묘한 역사는 온 땅과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4b-6)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태양이 진 상태를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쳐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태양이 있는 곳을 궁전이나 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대에 태양은 숭배대상의 1순위이자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태양이 머무르는 곳은 왕궁이라 생각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막(천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태양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에 하나일 뿐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남자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는 결혼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랑일 때가 가장 생기발랄합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어 생

물이 생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모습을 신라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태양이 승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때 피조물의 하나로 표현하는 다윗의 신앙은 참 깊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은혜, 그리고 기도(7~14)

1-6절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노래합니다.

(7~9)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윗은 각 절마다 2개씩 모두 6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과 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16~17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죽었던 부분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②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의 결과까지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 어떻게 회복시켜주시는지를 화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명확하기에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돌이키는 삶을 살면 지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그 지혜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었다고 판명되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의 일을 매일 신문 방송에서 보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③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정직하다’는 ‘올바르다’의 뜻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어서 먹으면, 머리가 아프던 것이 사라지고, 흘러내

리던 콧물이 그칩니다. 그 처방전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어 먹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킴에서 오는 기쁨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④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과 같이 만년설 지역을 선글라스나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오르게 되면, 눈에 반사된 자외선이 눈을 자극하여 눈을 뜨기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설맹(雪盲)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눈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하게 얹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8절의 ‘순결함’이 ‘깨끗함’이라고 한다면, ‘정결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1원칙은 정결함입니다. 제물로 소를 드려야 하는데 가난하여 양을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려야 하는데

궁핍하여 비둘기로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드리는 대신 정결하지 않은 양이나, 심지어 훨씬 더 비싸다고 할지라도 정결하지 않은 소로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⑥ 여호와와 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재판은 진실이고, 모두 다 옳습니다’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옳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진실을 왜곡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말씀)이 이러하기에, 그 말씀이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10~11)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사람들의 사모 대상의 1번은 금(순금)으로 표현되는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라고 합니다. 일반 범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뭐가 부족해서 저러지? 나 같은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동분서주 뛰어 보지만, 소유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더 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재물은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참 맛을 내고, 더 나아가 영원의 맛을 맛보게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깊이 품음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은 인생을 변질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상인줄 알았는데 별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을 변화하게 하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12~13)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허물’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고의로 죄를 짓지도, 주장하지도 말게 해 달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와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할 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얹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 하반절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그렇게 되기를 많이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이시고, 구속자이시기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열납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크게 여겨지는 것은 단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목동이었을 때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다른 목동이가지 않았던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왕이었을 때도 다른 왕들과 다른 ‘엑스 호도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마음

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과 믿음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이 시편 19편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삶과 믿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늘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저녁으로 읽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주일예배 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나, 구역성경공부를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며, 눈이 밝아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이거나 ‘세상 속의 길’을 걷지 않고,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로 시작되는 다윗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 우주현상이나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2. 나의 일상 가운데서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나 인도하심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3.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과 특성을 6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4.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1~9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
 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
 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그들은 비틀
 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
 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왕을 위한 기도(1~5)

오늘 시편의 표제도 어제와 동일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에서 헤아려보니 ‘인

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시편 150편 중에서 53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윗의 시가 39편, 고라 자손의 시가 9편, 아삽의 시가 5편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인도자(성가대의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입니다. 모든 시편이 그러하지만, 특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표제가 붙은 시편은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음을 또렷하게 알려줍니다.

(1~3)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불드시며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시편이 다른 시편과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른 시편과는 뭔가 다르지 않으십니까? 대명사 '내'가 아니라 '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인데,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기도)'라기 보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시(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린 기도로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드린 중보기도로 이해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느 전쟁 전후에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려준 기도를 기억하였다가, 전쟁에서 돌아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이 이스라

엘 전체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은 ‘전쟁에 임한 날’일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
히들과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일에 살찐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
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와 입
으신 옷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
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시고 머리를 숙이신 후에 영
혼이 떠나가실 때까지 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드리셨습니
다. 예수님께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이 전쟁
터와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지심을 앞 둔 겟세마
네에서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신히들과 백성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있습니
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기도
를 받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까지 올수 있었음은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깊이 인식한다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전
존재를 의미)’이 다윗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의 많은 조상 가운데서 왜 야곱의 하나

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등등 다 가능함에도 말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동의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지, 그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창47:9).”라고 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한 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는데, 참 솔직하고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잡고, 엉덩이뼈가 부러져 절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감사제’이고,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다윗은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비한 자리에 둔 후에, 헌신과 감사의 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한 후에, 재헌신과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적 지시어인 ‘셀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쉬어라’, ‘올려라’의 의미로 여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아가는 다윗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셀라_쉬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거는 싸움입니다. 그 때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서 간구하고 싶을 때입니다. 상황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침이 없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셀라_쉬어라’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할 때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네 말을 다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말하게 하라고 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반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고만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올려드

림도 중요하지만, 들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때때로 “셀라”가 필요합니다. 잠시 기도의 호흡을 고르며 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높여 기도합니다.

(4~5)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너’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즉 ‘네(다윗) 마음의 소원’은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 것이고, 그 소원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스웨덴이나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그들이 이겼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장에는 11명이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에 공이 한 번도 닿지 않아도, 경기장에서 잔디 한 번 밟지 않아도 대표팀이 경기를 이기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패배는 자신들이 패배가 되며 그 결과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과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승리의 확신(6~9)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 주어가 1인칭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가는 다윗이 승리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다윗의 확신, “응답하시리로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능력)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며, 그 능력은 우리를 견져 올리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이자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시에 ‘병거와 말’은 지금의 군대로 하면 ‘탱크와 대포를 보유한 기갑부대’와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에는 무기와 군인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고,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화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정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신17:16).”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여, 그로부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마병이 1700명이라 함은, 말도 1700마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1700마리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중에서 100마리만 남기고서 나머지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전쟁을 말의 힘, 즉 무기에 의지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8~9)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비틀거리며 엎드러짐과 일어나 바로 섬, 이것은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린 기도이고, 그것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없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총명함과 뛰어난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얹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엑스 호도 스_길 밖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으로 삼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연을 보고도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고서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 때도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했고,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하는 인생에 역풍이 불어올 때도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을 줄도 아는 사람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량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의지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과는 다른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재물이나 크고 작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슨 내용으로 중보하셨습니까?
2.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3.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물질이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시편 21:1~13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8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9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10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1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1~7)

오늘의 본문도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의 연속시처럼 이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시편이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 대한 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이 ‘출정가’라고 한다면, 21편은 ‘개신가’입니다.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왕(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기뻐한다고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전리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도 하지 아니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터로 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거나 왕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군인들이 용맹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하는 다윗을 위해 시편 20:5에서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린 것 뿐 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CCM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시작되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 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게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으로 영접하여 주

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의 문자적인 의미는 ‘좋은’입니다. 다윗에게 아름다운 복은 전쟁에서의 승리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의 인생에서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즉 ‘좋아 보이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에게 쫓겨 다녔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때가 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도 그때 다윗의 삶과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시편의 여러 편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후에 그 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아름다운 것_좋은 것’을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쥐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준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던 때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왕으로 등극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왕됨은 더욱 견고하여 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 모습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러합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NO”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하7:13-16)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겠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 주시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됨으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건물(house)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family)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BC 586년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남북왕국이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그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삶과 신앙이 우러러 보이는 것은,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왕들은 거의 신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고 합니다. 즉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도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_무조건적 사랑과 자비’가 임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더 많이 할 줄 알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8~13)

오늘 본문 1~7절에는 과거와 현재의 시제가 혼용되어 사용된 반면에, 8~13절에는 미래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8-9)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손’은 하나님의 힘을 뜻합니다. 구약성경공부 본문인 느헤미야에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손은 선하기까지 하

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능력으로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힘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말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10~12)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며 그들의 지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보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보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함께하심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성공할 수 없었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다윗-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부강할 때였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때였습니다. 그 때를 우리나라 삼국시대로 말씀드리면, ‘광개토-장수왕’때입니다. 그 때가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였습니다. 그 때는 광활한 만주 벌판이 다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가 아무리 왕성했다고 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대적이 사라지는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과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갖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려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의 다윗 됄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현재에도 의지하고, 미래에도 의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영원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세상 왕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걸음으로 그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인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걸음으로 주님의 손과 오른손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복인 줄로 알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심을 인정하여, 자신도 신하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들이 가지 않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떨어진 일이나 상황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 일을 주님의 은혜로 다 마친 후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 주신 은총인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다윗은 전쟁터로 나갈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3.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4.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시편 22:1~3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멜렛사할에 맞춘 노래]

1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 내 하나님이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까 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바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까 10 내가 낳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까 11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까 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까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까 16 개들이 나

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9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
 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
 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 여호와를 두려
 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 그는 곤
 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5 큰 회중 가운
 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
 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
 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 땅의 모
 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
 에 예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
 이로다 29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 와서 그의 공
 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버림받은 사람의 호소(1~11)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
 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

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의 질곡을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다녀야 했던 서글픈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의 처절함으로는 아들의 반란에 왕궁을 나가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던 때로 생각되지만 밧세바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의 참담함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표제에 있는 ‘아엘렛샤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래쪽에 보면,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영어성경에서도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춘(to the Tune of the Doe of the Morning)’이라 말합니다. ‘사슴’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의 첫 부분,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가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듯한 상황 속에 있음을 전반부에서 호소합니다.

(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강하고 능하시신 분’,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듯하여, 가슴 위에 큰 돌을 얹어놓은 듯한 짓눌림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외국에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는 자신 만만하게 집에서 나왔지만, 모든 소유를 다 날렸을 때 자신이 있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만 해도 비참한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쥐엄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 그곳에는 형이나 가족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품꾼들에게까지도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부유하시건만, 자신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굶어죽을 것 같은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스라이 멀리 떨어져

계신 듯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인 무력감 속에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짙은 패배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년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일로 시작된 다툼이 갑자기 커져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더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상대가 헤어지자고 통보해 왔다면 그 충격을 이겨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절망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6~8)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 그레고르가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 있었던 것처럼, 시인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짐승에 빗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개보다 못한 인간”, “개보다 더한 인간”, “개 같은 인간” 등등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신을 보고서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한 번씩 내밀고 갑니다. 또 머리를 흔들며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네?”,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건져주겠지. 우리가 알게 뭐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했던 말들입니다.

(마27:39-44)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윗이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나 잘하지!”, “꼴값 떨어 때 알아봤어.”입니다.

만약 제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아래에서 “약 오르지… 내려와 날 잡아 봐라”라고 말해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저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내려오시면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11, 새번역)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실상(12~21)

어느 곳에도 기쁨 데가 없었던 다윗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2~13)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바산의 힘센 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소들이 순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 들소들은 정말 거칩니다. 들소와 사자가 1대1로 붙으면 사자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소를 먹잇감으로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6~7마리의 사자가 한꺼번에 덤빕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거칠고 포악한 소들이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들이 입을 벌리며, 무엇을 찢는 것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한숨 쉬며 고백합니다.

(17~18)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피골상접(皮骨相接)’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살은 다 빠지고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겹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다’는 것은 겹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기에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을 말합니다. 역시 이 말씀을 무한대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

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송(12~21)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소연하던 다윗이 불현 듯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이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님을 말입니다. CCM(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28)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와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심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다윗 자신도 다스리실 것임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음 같음과 처절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셨었지만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가실 수 있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은, 다윗을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 밖의 길’을 걷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올려드려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벌레와 같이 생각되었고, 사람들의 조롱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마치 맹수에게 둘러 싸여 있는 것과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신 것도 아니었고,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점점 더 다윗은 '길 밖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실 정도로 처절하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이 있었지만, 주님의 별세, ‘엑스 호도스’를 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엑스 호도스_길 밖의 길’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를 드리실 정도의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2.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생각되었거나,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셨습니까?
3. 사방이 크고 작은 일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될 때,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길 밖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시편 23:1~6

[다윗의 시]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그의 일상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더욱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시편 2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5~6절은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며 전능하시고 객관적이시며 초월적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3~5절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며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1~4)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이미지로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 등의 가축에게 있어서는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는 무한 신뢰의 대상이니

다. 다윗 역시 목자로서 양을 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의 목자"되신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
뢰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은 양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양이 지닌 고집 세
고, 이기적이며, 주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특성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양처럼 연약하고 형편없
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려주
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거구 골리앗 앞에서, 사울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도, 수많은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도망칠 때 바르실래를
통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
한 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는 욕심을 가
지고 있으면 그 욕심은 절대로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

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고난과 치욕이 기다리고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 밖의 길 즉, 엑스 호도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에 사인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표에 본인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장사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 다윗이 엑스 호도스, 길 밖의 길을 걸을

때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후보에도 들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던진 창이 다윗의 옆을 지나 벽에 꽂히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5~6)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서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더욱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며 죽이기 위해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의 처지와 상황이 이제 뭐냐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원수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 따라 오는 이집트의 군대에게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였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곳에 살고 있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매뚜기와 같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원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해 풍성한 식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과 시험, 환란과 유혹 그리고 각종 원수 앞에서 그 원수 뒤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압하시고 자신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대 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듬뿍 기름을 부어 그가 들고 있던 잔이 넘칠 만큼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몹시 기쁘게 맞아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원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환대해주신 하나님을 그의 일생을 통해 경험하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

빛의 확고한 믿음이 마지막 절에 잘 드러납니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는 결단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은 시편 84편10~11절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84:10~11)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정직한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결단과 고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양으로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매 순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길 밖의 길을 걸으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2.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며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의 고백을 보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표현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4.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시인의 결단을 보며,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

시편 24:1~10

[다윗의 시]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의 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
 설하셨도다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
 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
 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
 콧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7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
 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
 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
 어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
 이시로다 (셀라)

시편 2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하던 시였음을 알 수 있습

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3~6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7~10절은 예배자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1~2)

첫 번째 부분인 1~2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출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소위 시내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시내 산 언약을 맺을 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그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신자반에서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시험이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시련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분의 뜻을 찾으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어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바다와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분의 피조물인 인간.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수 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조물 인간(3~6)

3~6절은 피조물 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 합니다.

(3)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네 가지 항목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로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아야 하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이 네 가지 항목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이 네 가지 항목에 합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나의 행동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

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7~10)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문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법궤가 성전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성전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세상 역사가 그러하듯 인생도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질병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의식주와의 전쟁, 정신적인 문제와의 전쟁, 영적인 문제들과의 전쟁. 이 모든 문제들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10절은 한 번 더 강조해서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10) 문들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힘들어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는 학생과 힘들어서 불평할지라도 힘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견디는 학생과는 다를 수 없습니다. 공부가 힘들어 불평할지라도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불평하는 학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하는 이유를 몰라 공부가 힘들다고 불평만 하는 학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번민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의 불편함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목에 매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까지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불편함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 손목에 매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2. 인생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4. 내 삶의 불편함이 성령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 손목에 매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시편 25:1~22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리러보나이다 2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 주를 바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
 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4 여호와
 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
 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0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
 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6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 내 마

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 하나님이어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신앙고백 전에 드리는 3중 간구(1~7)

오늘 본문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조를 따라서 연주하거나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일을 겪어서 그 때의 상황을 하나님께 시로 올려드린 기도라기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시절에 겪었던 반대지들이나 대적자들의 박해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각 절이 히브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 시편’이 모두 8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 25편이 9~10편에 이은 두 번째 시편입니다.

① 1~7절에는 신앙고백 전에 드리는 세 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3)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 달
라 간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로 시작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러러보나이다”가 가장 먼저 나오
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부끄
럽지 않게 하시고’는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
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다윗은 대적들에게 처절하게 패
배를 당했고, 대적자들은 대승을 했다며 축하연을 벌이는 것과
같은 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부끄
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고, 최상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동일합니다. 혹 인생길에서 수치
를 당하거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
다면, 그 후회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

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
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② 신앙고백 전에 드리는 두 번째 간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4~5)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
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와 우
리말이지만, ‘도(道)’가 ‘넓은 길’이라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또한 ‘도’가 인생의 전체 길이라고 한다면, ‘길’은 매일 매일 걷
는 걸음과도 같습니다. 또한 ‘도’가 인생길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이라면, ‘길’은 매일의 실천과 전술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105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도’가 ‘내 길에 빛’이라고 한다면,
‘주의 길’은 ‘내 발의 등’과도 같습니다. 주의 길과 주의 도가
함께 있어야 매일의 삶을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 전체의 방향도 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③ 신앙고백 전에 드리는 세 번째 간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6~7)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눈에 띄는 큰 죄는 2가지입니다. 밋세바 사건과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밋세바 사건은 49세 가량 때의 일이고, 인구조사는 죽기 3년 전인 67세 정도 때의 일입니다. 젊었을 때의 가장 큰 실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를 찾아간 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허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서 ‘죄’와 ‘허물’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미끄러진 허물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가능성’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선해질 가능성도 크고, 악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약점은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젊은 시절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삶이 가장 바른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선하심과 인지하심에 대한 신앙고백(8~15)

(8) 여호와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선하다’는 ‘좋다, 후하다’의 뜻이고, ‘정직하다’는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후하시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응석배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르기만 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가 한없이 어려운 분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시고, 바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2절에 반복해서 ‘가르치다(교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

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4~15)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하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친밀함’은 ‘대화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의 뜻입니다. 특히 ‘한 가족이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뜻합니다. 바른 가족 간의 대화에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함입니다. 업무관계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도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지만, 그 때는 상대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우습지 않은 이야기에도 웃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다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함께 웃습니다. 상대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로 가족들 사이에는 가족들만 아는 내용으로 비밀스러움도 있습니다. 즉 가족들만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가족을 가족 되게 만들어주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줍니다. 밖에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족들 간에만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_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비밀이 많아지면 자신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고백 후에 드리는 7중 간구(16~22)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서, 16~22절까지, 7절에서 각 절마다 간구를 드립니다.

① 16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② 17절에서는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시기를, ③ 18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④ 19절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주시기를, ⑤ 20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를, ⑥ 21절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⑦ 22절에서는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6~18)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며 ‘돌이켜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다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즉 등은 자신이 돌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것은 외적인 짓눌림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길이 좁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길이 본래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와 같았는데, 마음의 길가에 쌓이는 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골목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곤고와 환난이 자신의 죄와 상관있음을 고백하며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대적자들로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시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이 성실의 길과 정직의 길로 가도록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린 다윗은 자신의 간구대로 한 평생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떠올렸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왕상 3:6)”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다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22)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1~21절의 모든 간구는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임이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은총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임으로, 그 매임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려고 했을 때는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우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허다했음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족들의 밥상 교제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평생 성실과 정직한 길로 나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매어 놓은 은총의 매듭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와 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때를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2. 지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잊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다윗은 자신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렸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시편 26:1~12

[다윗의 시]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앓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5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앓지 아니하리이다 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9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 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11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죄함에 대한 변명(1~7)

오늘 본문에도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사무엘하 6장에 있었던 법궤를 옮길 때가 배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나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다윗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흠이 없음’과 ‘온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아주 많이 악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완전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에 나온 대런 아로노프스키(Darren Aronofsky) 감독의

영화 <노아>를 영화관에서 2번 보았습니다. 성경과 다른 내용이 많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자신도 함께 죽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온전)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다윗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성전을 완성하고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상9:4~5a)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당부이자 경고입니다. 즉 성전을 완공했다고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합니다. 만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기면,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은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이 온전하였다고 인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의 표현입니다.

(2)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는 모두 제련소에서 금속을 제련하여 불순물을 걸러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철광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은 그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고, 단련하는 것은 금속을 풀무(용광로)에 녹여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동사의 공통점은 겉만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을 분석하고 확인하여서 그 본질을 알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금속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뜻’의 문자적인 뜻은 ‘신장(콩팥)’이고, ‘양심’은 ‘심장’입니다.

우리말에도 신체의 장기로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심장)이 통하다. 마음을 먹다’, ‘애(창자의 고어)가 끓어오르다’ 등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

을 살펴봐 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3a)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인자하심’은 선행적인 사랑,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16편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자비가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대로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그것도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3b~5)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워합니다.

‘허망하다’는 ‘망령되다’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의 3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간사하다’는 ‘숨기다’는 의미인데, 겉으로는 진리를 행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사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외식(外飾)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6~7)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 행할 때 하던 행동이고, 제단을 두루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

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인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함(8~12)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9)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추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살아 있는 동안에 동행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지 않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0~11)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악함’은 ‘악행’ 또는 ‘음행’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당시의 매매춘이나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의 매매춘은 거의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은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며 간구합니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보다, 또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갈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사악한 삶과 뇌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12)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 이제는 다 이상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울무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이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종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과거의 유선전화에 비하면 지금의 휴대전화 정말 자유롭습니다. 아무것도 매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화에 매여 있어야 비로소 전화기가 전화기답게 됩니다. 전화에 매여 있지 않은 전화기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전기에도 매여 있어서 충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매임이 없는 전화기는 아이들의 장난감보다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섬어주신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과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건져 올려주시심을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숭배와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발이 평탄하게 서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선행적인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속량하여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다 우리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어 주셨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떨쳐 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주 흔들리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묶어 매도록 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인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온전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난 시절 가장 온전하게 행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흔들렸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2. 또 지난 세월 중에 가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3.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진창에서 건져 올려 주시고, 물질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1~14

[다윗의 시]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
 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
 하여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
 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
 로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
 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
 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 주
 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
 다 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

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
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13 내가 산 자
들의 땅에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기원(7~13)

본문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
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 다닐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경
향이 많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기 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
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
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부르짖다’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
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기
도를 드릴 때는 침묵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할
지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도움을 구할 때
는 부르짖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일을 피해가게 하지 않는데, 이 일을 겪어야 그것만큼 삶과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은 압니다. 평범한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큰 일을 겪었을 때도 드리게 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에 둘러 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얼굴’은 한 존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다”는 우리말 관용어도 자신의 전 존재가 창피를 당하다는 의미인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르고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자신이 매

달려야 할 분이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바르고 제대도 된 부모는 자신이 죽을 상황이 되어도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표현은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든 자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도 위급한 자녀를 돕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맞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11~12)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처참한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질투한 사울이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려 뽑은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자신이 있는 곳의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이거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해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했던 그런 순간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의 공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지금의 위기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탄한 길’은 단지 ‘구불구불하지 않는 곧은 길’이나 ‘굴곡이 없는 평평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이 질곡(桎梏)의 상황이나 이 형극(荊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승리의 확신(1~6, 14)

- (1)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칠혹 같이 어두운 인생을 걸을 때는 ‘빛’으로 인식했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걸어갈 때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유한한 생명일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 말하며, 모두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1인칭이 아니라 2인칭, 3인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빛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3)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물려와 자신을 대적하여 포위할 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혹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태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의 동사,

‘내게로 오다’, ‘실족하다’, ‘넘어지다’의 시제는 모두 과거입니다. 그리고 3절의 동사, ‘두렵지 아니하다’, ‘태연하리로다’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고서, 미래에도 그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미래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되므로 현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에서 ‘한 가지’는 숫자 1을 의미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로 이어지지만, 히브리어와 성경과 영어성경에는 ‘한 가지 일’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소원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성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23:6)”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

은 평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5~6)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막 속에 숨겨 지켜 주시고, 장
막에 숨겨 두셨다가 반석 위에 세워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중 하
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제네바에 감추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서 스스로 늘 깨어 있어서, 잘 숙성되기를 소망했던 기억이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실 만큼 성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교회 2011년 표어가 ‘여호와
를 기다릴지어다’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다리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
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에서 초점은 ‘기다리다’에 있지 않

고, ‘여호와’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이면 아닐 때, 그것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거나, 약간의 도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망가지고, 고장이 나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리다가 지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삶을 영원히 망가지지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공허히 여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이심과 구원자되심,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아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상황과 공허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상황은 그 당시는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인이었던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공허히 여겨주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 거룩해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막 속에,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심을 확인했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목에 매어둔 은혜의 사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불리야 할 상황도 있었고, 긍휼히 여겨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빛과 구원과 능력으로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편함, 건강의 불편함, 관계의 불편함이 있을 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사슬을 매어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상황과 공허히 여겨주셔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을 1인칭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3. 다윗은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과 공허히 여감을 받아야 할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로 승화하였습니다. 나의 불편함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승화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 있는 불편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수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니

시편 28:1~9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4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6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8 여호와여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환난 중에 호소(1~5)

오늘 시편도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녔을 때 지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참 처량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주군(主君)이기도 했지만, 장인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 자신이 싸워 이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아비멜렉)에게로까지 피난을 갔겠습니까? 하지만 그 때는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위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장인과 사위가 견원지간(犬猿之間)과 같은 집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다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아들에 의해 왕궁을 빼앗기고 동가식서가숙하며 쫓겨 다녀야 했다면, 그 처량함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20대 때였습니다. 그 때 쫓겨 다니는 삶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버텨볼 수 있고, 그 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는 인생의 황혼을 오래 전에 넘어서고, 죽음도 몇 년 남기지 않은 60대 초반 경이었습니다. 그 때의 서글픔은 20대 때와는

정말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 이 시편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어진 것이라면, 다투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색깔은 짙은 회색으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떡구름만 가득하여 금방이라도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며 하소연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짙은 구름을 뚫고 내리 비치는 한 줄기의 햇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지 말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계셔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게 계심은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여겨진다고 호소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는 말의 의미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린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그

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런 처절한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그 이유보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인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의 좋은 예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은 한 때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신접한 사람(여자 무당)과 박수(남자 무당)를 모두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 듯이 떨리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이 없었고, 우림(우림과 둠뫼_제사장의 가슴에 달려 있는 12개의 돌, 판결을 할 때 사용)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은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라, 사울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치구니없게도 그는 엔돌에 사는 귀신을 부른다고 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불러서 올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은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절하는 여자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은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사(戰死)를 한 것이지만,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10:13~14)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여인을 찾음으로, 죽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가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참담하여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여”라 부르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1절 외에도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석’은 ‘견고한 보호와 도움’, ‘완전한 피난처’를 뜻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2)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제는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까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지성소’를 향한다고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즉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처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3~5)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깊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같지 않음을 표현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의 머리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양고기를 팔지 않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과도 같았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금방 구분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하게 보였던 것이 악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로 생각된 행동이 이익추구였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결론을 맺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영원히 이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에 대한 감사(6~9)

6절부터는 다윗의 기도가 간청에서 찬양으로 변경됩니다.

(6)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처절하게 간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며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찬양이 솟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7~9)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와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번에도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1인칭,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노래’ 등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힘’에서 ‘힘’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힘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크고 작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방패’에서 ‘방패’는 실제적으로 방패를 의미하기도 하고, ‘보호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인생길에서 만난 환난들, 특히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심과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37살에 제네바한인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

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일엽편주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6년간의 사역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찬양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시편 18편의 다윗의 시로 만들어진 찬양이지만, 적어도 그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노래’, ‘내 찬양’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듦과 고통스러움, 고달픔, 처절한 환경 등을 노래하는 시편은 처음에는 그렇게 암울하고, 먹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마칠 때는 언제나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사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려움, 불편함, 고달픔, 울 수밖에 없음 등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총의 체인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학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에 매여 있는 하나

님의 은혜의 사슬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손을 들고서 간구해야만 하는 지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 다윗은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할 수도 없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심과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임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과 응답이 더딘 기도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손목에 매어주신 은총의 사슬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목에 있는 은혜의 사슬로 말미암아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2. 다윗이 처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혹 처절한 호소가 찬양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3.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 등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올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음에서 찬양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와 소리가 힘 있음이여

시편 29:1~11

[다윗의 시]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3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 여호와와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와 소리가 위엄차도다 5 여호와와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7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 여호와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 여호와와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갱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권능의 하나님(1~2)

본문 1절에서 시인 다윗은 먼저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

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노래합니다. 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곧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라고 밝혀 줍니다. 그리고 ‘권능 있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아’입니다.

권능은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통해 그 권능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는 권능으로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권능으로, 돈이라는 권능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으로, 권능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알고, 사람을 위해, 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소리(3~9)

3~9절은 여호와와 소리에 대한 말씀으로 시적이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3~9절에서 ‘여호와와 소리’라는 표현이 모두 일곱 번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일곱이란 숫자가 완전을 상징하듯 ‘여호와와 소리’는 완전한 소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3)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여호와와 소리와 관련해 먼저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필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노래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본문의 물을 지중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물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듯이 만물의 근원이 여호와와 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은유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여호와와 소리’가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목소리’이듯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소리의 근원적 의

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9)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갱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여 시인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고, 시론 산을 송아지처럼 날뛰게 하며 여호와의 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여호와의 소리가 사막을 진동시키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들고, 암사슴을 놀라게 하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마침내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친다고 노래합니다. 비록 짧은 절수이지만 마치 장엄한 한 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합니다.

참으로 누가 땅을 흔들고, 누가 땅 속에서 용암이 흘러나게 하며, 누가 바다의 파도를 치게 하고, 누가 바다를 날뛰게 합니까? 누가 바닥이 보이는 메마른 댐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며, 누가 바다에 물고기를 살게 하고, 누가 산에 나무가 자라게 하고, 들에 쭉이 나게 하며, 산과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주시며, 누가 이 지구를 돌리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누가 죄인 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10~11)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인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하며,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과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0~11)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도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자신에게 권능이 있다면 천국 복음과 사람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일평생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사슬 되어, 살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권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2. 여호와의 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3.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과 특징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4.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찬양의 이유이신 하나님

시편 30:1~12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기]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염은 잠간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표제의 의미

시편 3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입니다. 표제대로라면, 본 시편은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때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장차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많은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과 같이 언젠가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며 쓴 ‘다윗의 시’라고 봐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는 ‘시’인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이신 하나님(1~5)

1~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끌어낸다는 히브리어 동사 ‘딜리타니’(달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깊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양동이 스스로 물을 길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양동이를 사용하여 물을 길어 올

릴 때 비로소 물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반추해보면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비웃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답을 못 찾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 소진된 인내심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끌어내어 주는 은혜를 경험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신체적 질병인지, 영적 질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적으로든 건강하지 않을 때 최적인 방법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의사가 치료해 주었다고,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심지어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참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방법은 단지 치료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입은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살리셨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스올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살아있음에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스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스올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영원한 스올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며 살아야 할 다윗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이 내세까지 지속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입은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의 동사 즉, 끌어내었다, 고치셨다, 살리셨다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

를 기억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는 현재를 기준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없어도 마치 허박국 3장17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자고 주의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물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그의 노염은 잠간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때로는 우리의 찬송을 적극적으로 막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노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치 칠혹 같은 어둠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시 통과하는 터널일 뿐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대로가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당면해 있는 하나님의 노염 중에도, 고난과 눈물 중에도 우리는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6~7)

6~7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어떠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그 은혜를 그치시자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과 같은 자신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은 근심만 남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면 덩달아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희미해지고 반대로 자기중심성은 강화됩니다. 은혜를 잃으면 하나님도 잊히고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으며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8~10)

8~10절을 보면 자만심과 자기만족에 휩싸여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 자리, 권력, 사람, 경험, 배경 등을 우리 삶의 형통함의 원인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민낯을 확인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 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과 간구는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요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요란한 빈 수레와 같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한 다윗은 11~12절 말씀에서 현재 자신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춤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배움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과 처지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마땅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

며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눈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우리 삶의 구석 구석에 베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는 일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3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의 지난 삶을 반추할 때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5.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 피하는 자

시편 31:1~24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2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6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7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피하였나이다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
 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
 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
 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19 주를 두려워
 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
 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20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
 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
 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1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22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3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
 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 피하는 사람의 기도(1~8)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이자 기도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서 회중 찬양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글로 남겨지
 면, 자손들에게, 지인들에게 의미로 남게 될 것입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는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고난의 과정을 많이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상황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느냐’보다 ‘어디로 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닭이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심지어 목숨을 걸 정도로 자신의 머리로 모래바닥을 파서 거기에 머리를 넣고 양쪽 눈을 감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더 깊이 감추면 감출수록 더 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하다가 이내 실망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고백했겠습니까?

(3~4)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3절 서두에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석’과 ‘산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경쟁심과 질투심을 가진 사울으로부터 수 년 동안 도망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과 산성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쫓아올 때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주변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뒤에 숨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바위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그 바위가 없었다면 자기가 틀림없이 잡혔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숨어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겠습니까? 만약 사울의 군대가 나를 발견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주위에 숨은 줄을 알고, 군사들을 주둔시키면 내가 어떻게 도망가지? 등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산 중턱 이상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산 아래에 머물렀다가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산중에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그곳이 영원하지 않음을 매일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그

무엇으로부터도 두려워 떨지 않을 곳으로 피하고 싶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5, 8)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능력)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나 대적자들의 손(능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손보다 크지 않음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자신을 건져 올려서, 넓은 곳(온전한 안전과 구원의 상태)에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의 고통과 탄식(9~18)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능력)을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9~13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 9~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9~10, 공동번역) "아뢰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서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괴롭습니다,
울다가 지쳤습니다, 눈이 몽롱합니다, 목이 탑니다, 애간장이 끊
어집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운이 다하였습니다, 뼈마
디가 녹아납니다”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총체적 난국
에 빠져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윗의 처절한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아는 사람, 이웃에게 당하는 것은 훨
씬 더 상처가 크기에 극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는 도
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도끼(모르는 사람)에 발
등이 찍혀도 물론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아는 사람)
에 발등이 찍히면 더 아픕니다. 사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
면, 발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발에 난 상처는 얼
마의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서 괜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에 난 상처는 오래갑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갖고 가기도 합

니다. 다윗은 대적(믿지 않는 도끼)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믿는 도끼)에게도 버림 받고, 외면당해 고통스러워합니다.

(12~13) 내가 잊어버린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연예인에게 안티팬이라도 많은 것이 팬이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관심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좋지 않은 연예인,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예전부터 행실이 반듯했고, 실제로는 상당한 독서가 여서 여러 분야에 전문가에 버금가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비호감 연예인에서 호감 연예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일반인 취급을 받다가, 실제로 방송관련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바 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아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육체적인 고통 위에 사회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이 가중된 것입니다.

또한 나쁜 소문들이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13절에 있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사악한 소문’이란 뜻인데, 특히 본인은 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내용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그것도 악한 내용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전혀 다를 때 그 때의 불쾌함, 놀림,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괜찮다고 해도, 계속되는 싸늘한 눈빛과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14~15)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자신이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의 회상과 찬양(19~24)

다윗은 비록 지금 현재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20)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반대자와 대적자들이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경외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3~24)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위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바른 믿음이 없고, 그것보다 인생을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음은 그가 샘플이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인생에 굴곡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찾았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은 모두 불렀지만,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다윗은 왕재(王才)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실패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하지만 큰 형 엘리압에게 들었던 말은 “고맙다”가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는 꾸지람이었습니다. 형제 관계에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사위에게 질투심을 가져 사위를 죽이겠다고, 가려 뽑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도, 부부관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아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겠다고 쿠데

타도 일으켰습니다. 다윗 자신이 아들일 때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패했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과의 관계도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게 매어주는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있어서만은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또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만 피하게 해주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펼쳐 주신 24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온전하게 피할 곳이 하나님뿐인 것을 알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도 알았으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자식, 형제, 군신, 부부 등 모든 관계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매어주는 은혜의 사슬인 것을 확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를 누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2.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혹 반대의 경험이 있습니까?
3. 다윗은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혹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적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또렷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1~11

[다윗의 마스길]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 너희 의인들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죄의 복(1~7)

오늘의 본문의 표제에는 ‘다윗의 마스크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길’은 앞에 작은 표가 있고, 아래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마스크길’은 모두 13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회개 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 32편과 더불어 51편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과 32편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와 애완용으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등,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고서, 깊이 참회하며 지은 시가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32편은 참회시이기는 하지만,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훨씬 더 뒤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마스크길(교훈)’인데, 이 시편은 ‘진면교사(眞面教師)’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반면교사

(反面教師)로서의 다윗을 보여 줍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가 나오지만, 히브리어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우리말 개념으로는 ‘흉허물’에서처럼 ‘약점, 실수’ 정도이지만, 성경의 허물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 ‘변절’, ‘영역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새신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즉 가상칠언(架上七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는 것(용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기도 후에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3~4)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제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정도까지 코피가 자주 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흘린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와 이불이 피로 얼룩진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한 번은 코피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으로 나오고 왼쪽까지 막으면 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었는데, 콧속으로 붕대와 같은 천을 상당히 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숨을 쉬었는데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도 티스푼으로 떠서 입으로 넣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숨을 쉬니 입속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혀도 말라 갈라져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즈에 물을 적셔서 혀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내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습니다”의 하소연이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입속이 말라서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은 온 몸이 그와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러한 일이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자복으로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부인할 수도 있었고, 왕권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복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숨깁니다.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러했고, 사울이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죄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7)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한 때와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그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신하들이 옆드린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음식을 권유해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6절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들(솔로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죄의 교훈(8~11)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려고 하거나 완고해 지지 말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다

말이나 노새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하듯이, 완고한 사람들을 그런 짐승에 비유합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이 매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려한다는 말인데, 강한 상대에게나 되지도 않을 일에 무모하게 행동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의 완고함은 당랑거철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은 재차 권면합니다.

(10~11)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가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기 전에는 슬픔(고통)이 있었고, 회개 후에는 인자하심(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혹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다는 의미이지,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거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상15:5)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

기 위한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때 다윗이 종일 신음하여 뼈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말라비틀어진 풀잎과 같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환난에서 보호도 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사는 24시간이, 삶으로 쓰는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혹시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아니하여 주님의 손이 누르시는 것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려고 했고, 완고해지려고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런 신앙의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름답게 연주할지이다

시편 33:1~22

1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이다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이다 4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어 세상에는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 여호
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
루었도다 7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
외할지이다 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
시도다 11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
심이어 14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
도다 15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
시는 이로다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
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 여호와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랍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찬양으로의 부름과 내용(1~5)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의 전체 150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권이 1~41편까지 41편입니다. 그중에서 표제가 없는 것이 4편이 있는데, 1, 2, 10, 33편입니다.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10편은 9편과 합해서 알파벳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9~10편은 본래 한 편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표제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만 남습니다. 어제의 본문인 시편 32편의 마지막절인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32: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본문 1절과 많이 비슷해서 32~33편이 연결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33편은 32편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표제가 없어도 아주 훌륭한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개나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의인,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 관계의 결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8:10)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의미 있게 해 주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서 나옵니다.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수금과 비파를 말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에는 이 악기 외에도 나팔, 소고, 통소, 제금 등 다양한 악기가 언급됩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에서 드럼이나 기타를 치면 연세 높으신 분들이 나무라기도 하고, 언짢아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어떤 개혁자들은 교회 내에서 아예 악기 연주를 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시편에서 악기가 나오는 부분은 성경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이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 볼 단어는 ‘새 노래’와 ‘아름답게’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이겠습니까? 만들어진지 3년 이내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년 이내? 1년 이내이면 될까요? 가사는 만들어진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멜로디가 30년 전의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멜로디는 3개월 전에 만든 것인데, 노랫말이 30년 전의 것이면 새 노래일까요? 현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날짜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노래, 아니 오늘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암5:23)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소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

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배와 동일하게 찬양도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성경들은 ‘skillfully_솜씨 있게’라고 번역합니다. 즉 ‘잘 불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성악가나 가수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역량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아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의 ‘아름답게’의 기준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더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고,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정성을 담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정성보다 더 정성을 담는 것이 ‘아름답게’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방 기계가 주는 점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 부르는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잘 부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노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현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현 노래가 됩니다.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이라면,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속성,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의로우심이 없는 사랑은 ‘맹목’이고 사랑이 없는 ‘의로우심’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형편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의 모양과 주제들(6~19)

5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6~7)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의 광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0~11)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 나라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메릴랜드 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남부지역은 지역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한 해 걸러 비상사태가 선포되곤 합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럼에도 하늘에

서 내리는 비조차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17)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와 ‘군마’와 같은 단어들은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말들을 갖고서 천하를 호령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역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인상무상을 느끼게 하는 유물 밖에 없습니다.

세속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표현한 말을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상14:52)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대상12:22)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울은 전쟁을 치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이는데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러 모은 그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가 갈 때, 그의 손에 늘 사용하던 지팡이를 잡고서 갔는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증언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통한 소망(20~22)

결국 시인은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소망합니다.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결같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 삶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름답게, 더 숨쉬는 삶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어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일 우리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리는 찬양이 더욱 솜씨 있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이 우리의 힘이나 지혜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연결고리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2. 내가 새로운 심령(사람)이 되어서 불렀던 찬양, 가장 아름답게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3. 내가 하나님보다 군대와 군마(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힘)를 더 신뢰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와 아름다운 찬양을 삶으로 불러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1~22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 내
 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
 셧도다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
 지 아니하리로다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 젊은 사자는 궁
 꺾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
 리로다 11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12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
 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
 어다 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데도 17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34편은 시편에 있는 8개의 알파벳 시편⁵⁾ 중 9~10편, 25편에 이은 세 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 시편이 나오게 되었는지, 표제에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10~15이 그 배경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는 말이 사실에 아님에도 정말 다급하여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바로 다윗이 물맷돌을 날려 고꾸라뜨리고,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로 망명을 생각했으니 다윗의 마음은 짓눌릴 대로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처럼 블레셋 왕의 이름의 통칭

5) 각 절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며, 답관체 시편이라고도 한다.

(通稱)이고, ‘아기스’는 개인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단번에 알아보고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에 나오는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문쪽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영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도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느냐?”며 격노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인 34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배경에서 지어진 시편으로는 56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1~7)

(1) 내가 여호와의 향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했고, 수영에 침을 흘리며 도망을 나와야 하는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 ‘송축하다(바라크)’의 뜻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거기서 파생되어 ‘찬양하다’, ‘기도하다’의 뜻으로 확대 됩니다. 그리고 ‘송축하다’는 단

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실 때의 뜻은 ‘복을 주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송축하다’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임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항상’입니다. 앞의 ‘항상(all the times)’은 ‘모든 시간에’라는 의미이고, 뒤의 ‘항상(continually)’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매년, 매월,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하는 것이고, ‘끊이지 않고 이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2~3절). 자랑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것, 특히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기스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며 거기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높고 넓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이 참 신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는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의 왕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했기 때문이었거나, 자기에게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해 주시고, 건져 올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풀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며,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풀무의 온도를 일곱 배로 올리고,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 속으로 던졌습

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분명히 던져진 것은 세 명인데, 풀무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탄 냄 새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을 쳐주시고, 진창에서 건져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다음의 둘러 진 쳐주심과 건져 올려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준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8~22)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고 권합니다(8절). 우리의 몸에서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에 사물을 보게 하는 시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 아니라 ‘입의 역할’입니다. 음식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맛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음식일 때도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해서, 자신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체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와 같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진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깊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에서 ‘맛보다’는 동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음식을 조금 먹어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국을 큰 가마솥에 가득 끓인다 할지라도 큰 사발로 2~3그릇을 먹어서 맛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국을 끓인다 할지라도 국자로 조금만 떠서 먹어보면 짠지, 싱거운지, 간이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솥에 국수를 가득 삶는다 할지라도, 다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수 그릇에 가득 담아 먹어보지 않고, 몇 가락만 물에 씻어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충분히 확인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맛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가 부르도록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이 왜곡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

보겠다고 예배당이나 기도원에 계속 머무르려고만 한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을 피난처(피난처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로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았으면,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9~10)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거처도 불안정했을 것이고,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정도를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는 아닙니다. 충분히 사냥을 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고, 그 어미도

사냥을 합니다.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할 수 없어 주린다면, 다른 맹수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은 정말 희박한 경우이지만, 그것보다 더 희박한 경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15)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 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서 서로 평생 말을 섞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과 발로 선을 행합니다. 그들에게 바른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 올려 주십니다(18~19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건져 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

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할 정도의 상황에서 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시선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사를 지은 때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다윗이 20대였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한 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다윗처럼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소망입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적해야 했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도망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소리를 높일 수 있었는지,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는지 참 놀랍고 부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과 같습니다. 나는 언제 '점'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2.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3.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일생의 신앙고백과도 같습니다. 나의 지나온 생애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원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시편 35:1~28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 방
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4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
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7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
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8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9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0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
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
는 이라 하리로다 11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12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굶은 베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통 같이 하였도다 15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
 를 마지아니하도다 16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17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9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
 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
 소서 20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21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22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5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
 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
 서 26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
 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27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까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
 송하리이다

다윗의 탄원시

시편은 ‘찬양의 책’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은 하

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찬양시’이기도 하지만, 또 실패와 아픔, 좌절과 낙심 가득한 현실 가운데 인간의 신음과 탄식을 토로하는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 시편 안에는 ‘탄원시’가 더 많습니다. ‘탄원시’에는 전형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둘째, 불평과 탄식으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셋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넷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섯째, 찬양을 맹세합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탄원시의 전형적인 요소이나, 때로는 한두 가지가 생략이 되기도 하고 순서가 섞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왕권 유지에 급급했던 사울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그 억울하고 척박한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의 기막힌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탄원한 것이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은 세 단락의 탄원(1~10절, 11~18절, 19~28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원시의 전형적인 양식대로 각각의 세 단락의 탄원은 찬양으로 끝맺습니다(9~10절, 18절, 27~28절).

탄원1: 나를 도우소서(1~10)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1절). 그리고 구체

적인 불평과 탄식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바로 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처한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2)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친 단어를 연거푸 반복하며 대적자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4절에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에 ‘몰아내소서’, 8절에 ‘멸망이 닥치게 하시며’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대적자들을 ‘바람 앞에 겨’(5절)와 같게 해달라고까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시 1:4)와 같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혈안입니다(4절). 다윗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칩니다(7~8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2절).

그런데 1~8절의 탄식조가 9~10절에 들어서면서 찬양의 분위기로 갑자기 변합니다. 반전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어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9절). ‘내 영혼이’로 번역된 ‘(웨)나프쉬’는 ‘(그러나) 내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었습니다. 이 ‘그러나’의 반전은 탄원시

의 절정입니다. 불평과 탄원의 상황은 처절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고, 절박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비루한 처지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눈을 들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하며 오히려 찬양합니다. 다윗은 버려진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2: 건지소서(11~18)

두 번째 단락의 탄원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거짓 고소하는 대적자들을 고발하며 탄원합니다.

(12~13)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저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들이 병들었을 때 정성껏 기도해주었고, 환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윗을 치며 찢기를 마지아니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향해 이를 갑니다(15~16절). 다윗은 탄식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17절). 그러나 어김없이 반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18절). ‘그러나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외롭고,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현실 맞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탄원3: 찬송하리이다(19~28)

세 번째 단락의 탄원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대적자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입니다.

(21~24, 새번역)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탄원 역시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2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불평과 탄원 밖에 할 수 없는 서글픈 처지와 형편이 어찌
 다윗만의 일이겠습니까? 답답하여 미칠 일이 하나 둘 뿐이겠습
 니까? 신음과 한숨 없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질고 서러
 운 현실로 인해 비명과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제법 많습니다.
 우리에게 ‘시편을 기록하라’ 하면 우리 역시도 탄원시가 훨씬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탄원시는 탄원으로 끝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
 니다. 탄원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막막하고 절
 망적인 탄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아니 어떤 비참한 현실보
 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러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삶의 걸음을, 비록 척박한 길일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찬양하며 걸어가십시오.

(시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서글프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음이 더 크고, 조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음과 한숨, 탄식의 외침이 전부입니다. 사투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처지와 형편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무력한 인생을 향해 은혜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오늘을 살 소망과 힘을 덧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탄식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고 살아가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1~12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2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5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대 7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8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0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11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6편의 표제는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36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1~4)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 비약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2~4)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뿌리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처럼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실이 무조건 바른 줄 압니다. 또 지혜와 선행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를 벗어 버리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간직하고 나쁜 것을 버리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별이 없어서,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만을 간직합니다.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고, 악을 단번에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출발은 자신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며,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을 자신 위주로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중심은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세상,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삶보다는, 내 유익이 우선되는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의인의 철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악인의 철길을 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삼하11:2). 암몬과 싸우는 국가적 위기의 순

간에, 통치자 다윗은 저녁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깨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나라를 위해, 밤을 새서 기도하다가 늦잠을 잔 것이라고 하지만,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와이트 할레크’는 ‘게으른 상태, 빈둥빈둥 거리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밤새바를 보고 정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상황을 분별을 해야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분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유익을 택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의 유익을 행했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급기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의인의 뿌리는 자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창조물과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은혜의 쇠사슬을 묵상하며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는 생각과 언행은 언제나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절대 자신이 맺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열리게 하지만,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 즉 ‘의

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닌, 오직 타인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시는 은혜(5~8)

악인과 의인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사실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의인의 철길로 달리지 않고, 악인의 철길로 옮겨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악 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5절). 그 인자하심으로 땅의 것만 보았던 우리의 본질을, 이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본질로 바뀌게 해주셨고, 주의 빛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8절). ‘복락의 강물’에서 ‘복락’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쁨이 아닌 “아다네카”라는 최고의 ‘기쁨, 즐거움’입니다. 에덴(창2:8)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강물은 졸졸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나할’은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를 뜻합니다. 또한 ‘메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 부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센 급류는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만

히 서있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정없이 내리치는 은혜의 급류’가, 우리에게 내리치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쏟아 부어지면 오물과 먼지,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복락의 강물은 우리의 죄악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주의 빛을 바라보는 인생(9~12)

그래서 내 소망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만듭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환경과 문제가 나를 주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빛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락의 강물을 경험하면, 우리는 의인의 철길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락의 강물은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아들이 없는 고통과 브닌나라는 여자의 핍박으로 인해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1:10)”,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삼상1:15).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한 것뿐이오니”(삼상1:15)에서 사용된 히브리

어 ‘쇄파크’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심으로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 부으면, 나중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나의 마음보다 더 큰 복락의 강물을 그녀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달라졌습니다. 아기를 가진다는 기도응답을 주신 것도 아닌데, 절망적인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삼상1:18)고 그녀의 달라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한나는 복락의 강물이 임할 때, “아기가 없는 괴로움, 브닌나의 공격으로 인한 상처, 아픔의 근심”이 은혜의 급류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쏟을 때, 주님은 복락의 강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복락의 강물은 내 손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이 은혜의 쇠사슬인 것을 깨닫게 하며, 삶의 근심과 걱정과 상처들, 또한 낙심과 절망이 강한 은혜의 급류로 소멸되며, 오직 내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신 한번 깨닫는 의인의 철길로 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악인의 철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악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가득한 근심과 괴로움이 의인의 철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을 때, 주님께서 복락의 강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세상의 소망과 욕심들이 씻겨 내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을 보는 자로서, 은혜의 쇠사슬을 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과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버려야 할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 간절히 쏟아야 할 나의 근심과 탄식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락의 강물로 소멸되어야 할 나의 죄악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락의 강물을 흘려보내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1~40

[다윗의 시]

1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
 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
 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
 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
 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
 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
 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움을 보심이로다 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

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도다 19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도다 21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도다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 내가 어
 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
 을 받는도다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 여
 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도다 29 의인이 땅을 차지
 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도다 30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
 족함이 없으리도다 32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
 여호와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
 지 아니하시리도다 34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도다
 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
 성함과 같으나 36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
 하지 못하였도다 37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3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
 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도다 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
 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역사를 신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산 후에, 삶을 돌아보고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신뢰해야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교훈과도 같습니다.

이 시편은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등장하는 ‘알파벳(답관체) 시편’입니다. 9~10편, 25편, 34편에 이은 4번째 알파벳 시편입니다. 5번째는 111편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면 진다(1~20)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20절은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2)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다윗도 그들 때문에 불평할 일이 많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하다’는 ‘속에서 불이 나다’는 의미입니다. 즉 ‘속에서 천불을 내지 말라’는 의미이자 ‘화병(火病)이 들지 말라’입니다. 또한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불의를 행함의 결과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일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은 ‘풀’과 같이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들이 누리는 것이 생각만큼 길지 않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서 십기는 동안 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이 뽑히거나 잘려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풀들은 다른 화초보다 훨씬 빨리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래서 빨리 뽑히고 잘립니다. 또한 아무리 파랗고, 아무리 신선하게 보이는 상추나 배추가 며칠만 밖에 두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의 끝이 그러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절부터 설명해줍니다.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의뢰하라’, ‘행하라’, ‘머물라’, ‘삼으라’입니다. 다윗이 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쉽고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의뢰(신뢰)하는 것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수록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가깝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신뢰하는 것들 중, 한 분임을 알고 화들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또한 다윗은 ‘선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18절).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땅에 머물고, 성실을 그의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

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세상에 살면서 그 의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곧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바르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됩니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이나 자기의 욕망을 기뻐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 기쁨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5~6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빛과 같이 우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나타내 주시면 맡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주인

으로 아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길이라도 유한하고, 능력으로도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놓을 수밖에 없고, 그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11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푹푹히 보리로다”(34절)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땅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심의 의심될 수 없는 진실 중의 진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사람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13~17절). 악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짓누르고, 의로운 사람은 없애고자 하지만, 우리 속담,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다’는 말처럼 ‘제 칼에 자기가 찢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면, 바르게 사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좀 덜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면, 그 누림이 자신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의인을 복주심(21~40)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책임져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3~24)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두 구절은 30여 년 전에 암송하고서 그 이후로, 생의 여러 순간에 되뇌던 말씀이고, 위로와 격려가 많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가 20대였습니다. 그때는 의식주(衣食住)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지방에 사는 ‘나발’이라는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목축한 짐승이나 농사지는 곡식들을 도적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린 우두머리가 특정한 지역을 지켜 주고, 양털을 깎는 때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사람 10명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600명의 가족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명이 가져오는 음식은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먹을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나발은 음식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내뱉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결식할 여러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 먹을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 신앙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순간순간에는 부족한 것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

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폐부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9~40)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견고함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식물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나지만, 유한하고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삶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들은 환난 때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견고한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젊은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들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이 혹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 주었고, 자기 뒤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도 하나님께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 계속 주님을 믿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가장 복 있게 사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그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매인 자유인으로 나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무게와 신앙의 방향으로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산 것이 아니었을 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외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도 인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믿음의 후세대를 위하여 이 기도의 시편을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한평생 주님께 매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보다 더욱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 사랑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 분량의 믿음의 색종이 한 장을 정성스럽게 붙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거나, 남은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2. 인생의 길과 신앙의 삶 가운데,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3. 다윗은 평생 “의로운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1~22

[다윗의 기념하는 시]

1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6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9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0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1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12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3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5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6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

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17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19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20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21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7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편과 더불어 6편, 32편, 39편, 51편, 103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그중에서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중에서 6편, 32편, 51편과 더불어 오늘 본문은 모두 그 배경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한데, 시편 70편의 표제에서 좀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그 설명이 명확합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참회와 관련된 절기 행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 시를 노래로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중의 회개(1~10)

(1~3)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이다

지금 다윗은 온 삶이 짓눌려 견딜 수 없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
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
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누르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
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
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진노’라는 말로 점점 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이 상
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화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활은 다른 무기들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을 아주 잘 쓰는 검객이 있다할지라도, 그 사람이 눈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휘두르는 칼날이나 창날을 피할 수 있
고, 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다릅니다. 화살은 멀리
서 날아오기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멀리 숨어서 화
살을 날리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화내심을 ‘화
살’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예전에
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이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일 것입니
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기에 더
욱 놀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을 눕혀놓고, 유도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누르기’를 시작하면, 아마 저는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훈련 받은 선수가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을 눌러도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십니다. 그 손이 눌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이 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왜 진노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4~8)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3절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서 ‘주의 진노’, ‘주의 손’, ‘주의 화살’이었다면 4~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나(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내가 우매한 까닭이고’, ‘내가 아프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가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번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이라는 수수께끼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눈꺼풀’이었습

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 죄의 무게’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졸릴 때의 눈꺼풀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한없이 가벼운 것이 눈꺼풀입니다. 천하장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눈꺼풀은 아주 가볍고, 어린 아이에게도 가볍습니다. 심지어 태어나 몇 달되지 않은 아기에게도 눈꺼풀은 그지없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는 다릅니다. 눈꺼풀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벼워지지만, 죄의 무게는 그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온 삶을 짓누릅니다. 아니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서 짓눌려 잠을 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10)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소원은 본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소원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탄식도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고, 기력이 다 빠지고, 눈앞이 흐려진다는 것은 기진맥진할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반의 고통(11~14)

다윗이 자신 아픔을 처절하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1~14)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잘 모르는 사람과 시비를 다투게 되면 속은 상하지만 이내 괜찮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친척’들은 다릅니다. 배우자나 부모자식처럼 깊은 관계일수록, 친구라도 친할수록, 친척들 중에서도 자주 왕래할수록 작은 일이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관계와 정서의 고통도 함께 호소합니다.

죄는 지을 때는 그 무게가 가벼워서 충분히 자신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즐거움과 재미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그 내용도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의 속과 관계를 다 찢어 놓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그 무거움과 날카로움, 무서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간구(15~22)

(16~20)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의 곱지 않은 눈길이 고통스럽습니다. 16절의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를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말이기는 하지만 ‘망자존대(妄自尊大)’는 ‘앞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부로 잘난 체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보다 훨씬 더 다윗이 당한 상황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내용이나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서 그저 비난하는 말로만 지껄이기만 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8절에서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한다고 고백합니다. 죄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는 즐

거움이 아니라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걱정하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입니다. 죄는 짓는 순간에는 아주 달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의정(糖衣錠)’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약의 맛이 아주 쓰거나 약의 냄새가 불쾌할 때 또는 약물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면에 당분을 입힌 알약입니다. 죄는 ‘당의통(糖衣痛)_단 맛을 입힌 고통’과 같고, ‘당의공(糖衣罇)_단 맛을 입힌 공포’와도 같습니다. 죄는 ‘당의통’과 같고, ‘당의공’과 같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이고도 관계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몸이 아팠을 때 정신이 고통스러웠을 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가진 즐거움은 잠시였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아주 길었습니다. 다윗의 몸이 아팠을 때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다윗은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꿰어 엎드려 있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서 그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파합니다. 부모가 죽어 자식의 가슴에 남는 상처도 크지만, 자식의 먼저 죽어 부모의 마음에 남는 상처는 더 큼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몸에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온 뼈마디가 다 아팠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을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려 온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방법으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반란은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들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사실만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증오의 눈길과 거친 말들이 다윗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의뢰할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21~22절).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사망이 막혀있을 때, 바라볼 곳은 하늘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때 바라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짧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긴 육체적·관계적·영적인

고통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소망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디딤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가 패망신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매인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 매인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누리며 하루를 보내어, 또 다른 사람들을 소망의 주님께 매어주는 연결고리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죄와 패락의 달콤함은 짧았지만, 그 때문에 겪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영적인 고통은 참 길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각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는 이런 시편을 기록하지 않고서도, 한평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삶의 기쁨과 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매어 있는 것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부심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매어 주는 연결고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혹 지난날,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며,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되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 나의 욕심이나 실수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3. 지난날의 삶이 슬펐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한 뺨 길이만큼

시편 39:1~13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뺨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
 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셀라)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
 들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
 은 주께 있나이다 8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10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
 하실 때에 그 영화를 쯤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
 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12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
 르짋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

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다 13 주
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전체 150편 중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참회시는 밋세바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을지라도, 그 사건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밋세바가 낳은 아
들이 병이 들었을 때나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 지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
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 형식으로’에서 ‘여두둔’은 사
람의 이름인 고유명사로 볼 수도 있고, 일반명사로 볼 수도 있
습니다. 여두둔을 일반명사로 본다면 그 뜻이 ‘찬양’ 또는 ‘감
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찬양과 감사의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찬양시
나 감사시로 분류되지 않고 참회시에 속합니다. 다윗이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고백한 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와 찬양의
곡조를 따라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은 어폐
(語弊)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은 고유명사인 사람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2012년 런던 올
림픽 체조 도마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는데, 그가 개발한 체조 도마기술이 국제체조연맹에 ‘양학선(YANG Hak Seon)’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만약 홍길동이란 체조선수가 도마에서 양학선이 보였던 기술과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서 금메달을 땀다면 ‘양학선을 따라 금메달을 딴 홍길동’이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두둔은 다윗의 시대에 아삽, 헤만과 더불어 악장(music director)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두둔의 이름은 62편과 77편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악인 앞의 침묵(1~3)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자포자기하며 마음이 내키는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곧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길을 지켜’입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조심하기보다 “나만 잘못했나?”, “이것은 내게 너무 과한 벌이 아닌가?” 등등의 생각으로 인해서 한동안

거친 삶을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야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정도(正道)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로도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거친 행동과 거친 말입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 목줄을 채우는 것과 입마개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예티켓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입마개를 반려견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 채우겠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언행(言行)을 조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행언(行言)’을 조심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2~3)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잠잠하다’는 ‘단단히 묶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혀를 묶다’는 의미입니다. 혀가 묶이게 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큰 놀림이 되었습니다. 할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을 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말이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할 때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다윗은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악한 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될 때는 사지 않는 것이 바른 선택인 경우가 많듯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과 믿음이 깊어 집니다.

인생의 종말(4~6)

사람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참소하며, 불의를 행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의 행실을 모두 보셨지요?”나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말도 들으셨지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좀 주십시오.”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짜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다가 죽을지 날짜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끝에서 보아야 정리가 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이나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내버려 두었던 사람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연약한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한 뼘의 길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공원묘원과 같이 많은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를 가면, 각 무덤에는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고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고인이 좋아하는 성경구절이나 좌우명, 격언과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석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 사이에 있는 ‘짧

은 줄_하이픈hyphen'입니다. 제가 올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1965~2018'입니다. 이 짧은 줄에 제 인생 53년의 삶이 전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이픈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일어섬과 넘어짐, 입학과 졸업, 가족, 친구, 일터, 교회 등등이 전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만약 저보다 30년을 더 산 분이라면 '1935~2018'이고, 저보다 50년을 더 사신 분이라면 '1915~2018'이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30년을 덜 산 청년이면 '1995~2018'이고, 저보다 50년을 덜 산 아기이면 '2015~2018'입니다.

사람들은 그 묘비들을 보고서, 103년, 83년, 53년, 23년, 3년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103년은 긴 인생을 살았다고 여길 것이고, 3년, 23년은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을 살았건 103년을 살았건 모든 인생은 '짧은 줄, 하이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인생의 길이가 딱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뼘의 문자적인 뜻은 '손바닥의 폭'인데, 약 10cm입니다. 10cm의 짧은 줄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 쓰여질 숫자와 그 뒤에 쓰여질 숫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얼마나 짧습니까? 100년이 아니라 500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에 비하면 그저 손바닥 폭에 불과합니다.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는 ‘허상’,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한평생을 살며 재물을 쌓아도 인생은 실체도 없는 그림자(허상)와 같고, 자신이 쌓은 것을 누가 거두어갈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한평생 털 먹고, 털 쓰고, 아껴서 물려주어도 그것이 자식의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세워가는 디딤돌이 될지,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지 모릅니다.

용서와 회복의 기도(7~13)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의 앞에 ‘그러므로 이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신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널 때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할 때마다 저절로 고백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8~11)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좃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런 비참한 삶에서 건져 올려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만 하시고, 징계만을 계속하신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지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선벌악_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는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상선벌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2~13)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며, 자신은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오래 전의 유행가 중에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로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유행가의 나그네는 자신의 출발이 어디인지, 자신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 미련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과정까지 겪어야 했는지는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놓아야 할 타산지석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여 주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늘 돌아보고 조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다물게 하실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도 다시 세워 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 손바닥 폭의 길이에 불과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뼘, 손바닥 폭의 길이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는 그 의미와 가치가 영원으로 승화됨을 가슴 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께만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사람들을 소망의 주님께 매어주는 연결고리로 사는 한 날이 매어 주는 연결고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지나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삶과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이 무가치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이었습니까?
2. 할 말이 많아서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은 상황임에도 잠잠히 있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3.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손바닥 폭)이라고 했는데, 나는 인생을 또는 인생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시편 40:1~17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 하소서 12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 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 니이다 13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 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 라게 하소서 16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 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구원에의 감사(1~12)

오늘 본문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지 않아서 그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 자의 인도에 따라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과거의 한 때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

며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엘가나의 아내이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드리면서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여 주셔서 임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높이, 멀리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높고 멀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자신이 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큰 소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은 ‘황폐한’, ‘소름끼치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거나, 예상을 했더라도 그 범위가 내 생각을 훨씬 벗어나는 것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처구니가 없고, 얘기를 해도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수조’나 ‘늪지대’를 의미하고, ‘수렁’은 ‘진흙으로 질퍽한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 처나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처절하고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두셨고, 걸음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셔서, 그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 올려주심을 경험하고서 부르는 노래는 전부 ‘새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4~5)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4절은 시편 1편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며 ‘복이 있다’가 문장의 가장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며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 그 무엇에도 견줄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기심과 욕망,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그나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당시에는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이 선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사필귀정(事必歸正)’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비슷하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똑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생겼고, 모두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6~7)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림이나 예물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

씀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고백합니다(8절).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도 고백합니다(10절).

(12)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실상에 대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밖으로는 수많은 재앙이고, 안으로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셀 수도 없는 재난들이 거대한 보아뱀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다가와 다윗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숨쉬기가 어려운데, 다윗 속에서는 수많은 죄들의 칼의 모습으로 심장으로 다가가 심장을 잘라냅니다. 또 잘린 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은 죄가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다윗도 그와 같았습니다.

박해로부터 구원(13~17)

(13)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우외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4~15)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시편에는 이와 같이 “악인들을 벌을 주시고, 물리쳐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4~15절을 지금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은 낭패를 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삶이 한밤중에 몰래 다윗의 집을 찾아 죽이려는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전국에 내보내는 생방송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객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의 고난당함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고, 네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지”라며 조롱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마피아 조직원에게 잡혀서 더 큰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비웃던 사람들이, 비웃다가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림은 스스로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어서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면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도 뛰어난 전략가이자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직접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해주시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참 부럽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16~17)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

합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잘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 빠질 때도 있고, 수렁에 빠져서 질곡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음을 고백하며, 지금 비록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을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기기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수렁에서 나오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고, 우리 자신은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해 주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지난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힐 정도의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 진창 속에서 잘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았기에 우리가 함몰(陷沒)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을 덧입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는,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단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생각만으로 위안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 심어주신 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수렁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소망의 주님께 연결해 주는 소망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나온 인생길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셨습니까?
2. 내 죄가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지나온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41:1~13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10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11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2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가난한 자를 향한 위로와 회개(1~5)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시로서, 함께 부르는 회중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시편입니다. 저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은 없으나, 본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시인은 범죄함으로 인해 질병을 얻었으며,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자로 바뀌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은 시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랑하는 가운데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복이 있다는 히브리어 ‘아쉐레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시작될 때도 ‘아쉐레이’(복 있음이여)로 시작하고, 제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도 ‘복 있음이여’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즉 시편의 제1권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편마다 다양한 복과 복된 삶에 대해서 기록하였지만, 오늘 본문인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이 복된 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1절).

경제적인 궁핍, 형편의 어려움, 실패와 절망, 갑질과 억압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마음 다해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나의 선행에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향하기는 쉬우나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며, 억압에 시달린 이들에게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본문의 ‘보살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칼’은 연민의 마음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체적인 행위로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시간과 열정 뿐만 아니라 물질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 가난한 이를 돕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에서 건져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잠19:17).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백성의 삶 전부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2절).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낭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소비를 하나님께서 기억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갚아주신다면 베푸는 자의 삶은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병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주심으로 인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시인의 상황은 누군가를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4~5). 자신의 형편 또한 넉넉하지 못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저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기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흉악한 범죄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며, 배를 굶주리며 말라가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고 난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을 빼앗았습니다. 더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쓰지 않을 물건이나 상품을 사느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이 인식이 있다면 고통스런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기도(6~13)

다윗이 원수를 향해 기도합니다(6~13).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수들은 다윗이 더욱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도록 악담을 일삼았습니다. 누군가의 파멸을 고대하며 저주와 악담을

하는 원수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황폐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상하기 전에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윗의 파멸을 고대하는 원수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는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저주와 거짓, 증오와 헛된 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6~8).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더 괴롭고 아픈 상처는 가깝게 믿음과 마음을 나누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9).

주님께서도 가롯 유다에게 배신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였고, 많은 추억들을 공유하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가롯 유다는 거짓 입맞춤으로 스승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랑하는 제자 외에 모두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눅22:21~23).

원수들의 적대, 친구의 배신, 끝을 알 수 없는 투병생활 속에 있다면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기도합니다(10~11).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십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반응하고자 다짐합니다. 자신

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사업, 가정, 친구,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에 둘러싸이고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고 있어도 ‘여호와 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서 오늘의 시편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많이 가졌으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도 싸울 것입니다. 원수는 물론이거니와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여 살아갈 때,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의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원수가 미워하고, 질병이 나를 억누르며, 친구가 배신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매임으로 세상의 것들에 자유하며 영원을 누림으로 유한한 것들에 미련을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2. 현재 내 주변에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잠19:17)을 읽고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다윗처럼 나도 원수들을 향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지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신앙의 고백도 적어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1~11

[고라 자손의 마스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도다 6 내 하나님이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도다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도다 10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

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
리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함(1~5)

시편 42편은 시편 2권의 첫 시편입니다. 2권은 전반적으로 하
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소라 히
브리어 성경에서는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묶여서 발견되기도
하였고 본문에도 42:5, 11이 43:5에 반복되어 나타나 것을 보
면 두 시편이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고
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
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꾀하다 죽은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복음의 전달자로 바
꾸신 것처럼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아 하
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시편 42편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주
기 위해 기록한 마스길 곧 교훈의 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부르
는 노래입니다.

(1~2)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까

시편 기자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물이 없어 혈떡이며 죽어가는 사슴 같다고 합니다. 그 갈증은 무엇을 향한 갈증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고난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사람들의 조롱소리였습니다.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니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냐? 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그런 힘든 일이 생겨?’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조롱에 더 비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시편의 기자는 입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주야로 흘러는 눈물만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조롱 외에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던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속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의 비참함과 비교되어 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와의 비교에서 오는 슬픔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고

난의 밤을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예수아’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 건지시고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동이 틀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고난의 밤이 깊어가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 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캄캄한 밤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주위에 그것으로 인하여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도 조용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할 때 우리는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함(6~11)

계속해서 본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 내 하나님이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은 요단 강 근처 지역이며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미살 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곳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때 절기를 따라 즐겁게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께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은 시편기자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찾아온 고난을 폭포와 파도물결 같다고 고백합니다.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단어들은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큰 고난들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성난 파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8~10)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비록 그는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와 비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 안에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난의 밤, 고난의
파도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찾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
다. 특히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
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
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
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알 수 없
는 영킨 실타래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
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할 것만 같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시절,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이 맺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낙심되고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용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서 마치
귀신들려 희망 없어 보이는 아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과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에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우십니까?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걷다보면 때로는 고난의 밤과 고통의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우리의 고난을 보며 원수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불드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 주셔서 가정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길 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에 고난을 만난 시편기자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찾고 묵상하여 봅시다.
2. 최근에 내 삶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며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3. 시편 기자가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4. 시편 기자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난 자신을 조롱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묵상하여 봅시다.

큰 기쁨의 하나님께

시편 43:1~5

1 하나님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전체 150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2~72편까지 서른한 편이 제2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따로 ‘표제’가 없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시편 42~43편은 연결된 시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어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성경에는 42편과 43편이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

리어로 된 마소라성경에는 42~43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편 5절과 11절이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2~43편이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편 42~49편까지가 모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43편에만 아무런 표제가 없는 것도 42~43편이 하나였던 것을 알려줍니다.

‘고라’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는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 중에서 고탕의 후손이었습니다. 고탕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라는 다단, 아비람, 온을 비롯하여 250명을 모아 선동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면이 없고, 하나님께서 회중들과 함께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회중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까?”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며, 회중들 앞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작고 부족하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의 핵심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싶고, 자신들도 레위의 후손들이니 제사장의 지위도 함께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라와 그를 따르던 주동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고,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 버렸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의 후손이 쓴 것입니다.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에 나타나 있는 것이 11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들은 조상의 범죄에 대한 참회 시, 참회의 기도와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압제로 인한 호소(1~2)

(1)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에 사용된 동사, ‘판단하다’, ‘변호하다’, ‘건지다’와 같은 단어들로 봐서 시인은 굉장히 난처하고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동사들을 써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넘겨주시면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도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변호를 해 주거나, 아주 바른 판사가 재판

을 담당하는 것은 나의 무고함을 해결해주는데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고라 자손인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줄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아웁니다.

(2)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기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억울하고도, 무자비한 환경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다윗 역시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날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b).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

다. 우리 각자의 지난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이룬 일보다 내게 이루어진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해주심과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3~5)

시인이 그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3절이 잘 알려 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렇게 성전으로 갈 필요가 무엇이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매주 주일마다, 또 열심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에도 이곳으로 옵니다. 집에서 혼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되는데 여기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이 더 잘 되고, 마음에 잘 모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가서 여기로 오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나, 수술이나 김스로 인해서 몇 주간 병석에서 보내야 할 때 주일이 되면 이 곳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저도 해외에 살 때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간절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새벽의 예배당이 그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시인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에 그토록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것을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재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 최상의 기쁨은 자신을 하나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계신 성전에 가면 거기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두 번씩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2번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찢림을 줍니다. 시인이 이처럼 간절하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음에도 그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지를 말합니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낙심’이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낙심하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몸을 구부리다’의 뜻입니다. 그것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에 처하기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은 얼굴을 들게 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를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한글성경에는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

리로다”. 이것이 더 마음에 와 닿는 번역으로 여겨집니다. 시인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들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은 42:5, 11에 두 번 더 나옵니다. 만약 시편 42~43편이 한 편이었었다면, 같은 구절이 3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무리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고, 좌절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마지막 절에 와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면 언제나 환경 속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객관화하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기도합니다.

조상 고라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남긴 하나님을 향한 시를 남겨서 성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함으로,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며, 그곳이 나를 드리는 제단이 되어 큰 기쁨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자손은 진실하게 살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쓴 시가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후손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달려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와 같은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였습니까?
2.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신 까닭이니다

시편 44:1~26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2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 4 하나님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8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셀라) 9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흠으셨나이다 12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어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15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폄되던면 21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의 본문의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의 삶

은, 지난주일 설교로 말씀드리면,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의 길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것을 아는 그의 후손이 후 삶의 위기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회상을 통한 구원의 확신(1~8)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이 침입을 당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린 호소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기에 어떤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몇몇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왕하18:13~19:37)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온 유다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1) 하나님이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여!”로 시작됩니다. 국가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

하신 일'은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어서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버지들'입니다. 출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듣고 배워서 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부모들은 “부모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잘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식탁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과 나누어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의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2)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을 농부가 유실수(有實樹)를 심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과수원을 꾸려가기를 원할 때 그저 사과나무나 감나무,

배나무를 땅에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과수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과수원을 만들 땅을 정리해야 합니다. 잡목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전부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도 치워야 하고, 땅이 굳어 있으면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유실수를 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서 돌보며 거름을 주어야 하고, 잡초가 나면 뽑아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제대로 심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잡목과 잡초와 같은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을 고달프게(꺾어서 버리다) 하심으로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심어진 것이 자신들이 실력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기 칼’, ‘그들의 팔’은 인간(조상들)의 능력을 의미한다면,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곳이 무주공산(無主空山)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서 목숨을 걸고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신학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저와 함께 입학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이었습니다. 단 한사람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공부해서 입학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은 자기들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알기에 고라 자손인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도움 없는 현실 토로(9~16)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해주시고,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조상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9~14)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흘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혈값으로 파심이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혼됨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과거에는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자신들은 버리셔서 군대와 출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밀려나고, 약탈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자신들은 이리 떼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피난 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혈값으로 판 것처럼 되어서 자신들은 이웃에게 욕을 먹고,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험담거리가 되어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4절까지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주께서'입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 만약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회복 갈구(17~26)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힘든 상황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20~2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폄가면 하나님을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사람들이 잡아먹히는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구책(自救策)이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 가젤이나 얼룩말과 같이 다리가 4개가 있지만 그것들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합니다. 들소와 같이 뿔이 있기는 하지만 그 뿔이 앞이나 옆으로 나지 않고 뒤로 말려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다른 맹수들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 신에게 우상숭배를 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는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7~18)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외적에게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
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라며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데,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도 없고,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별세하셔서, 밤에 조문하러 갔었습니다. 가는 길에
라디오 기독교방송을 틀었는데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 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과거 신앙 선배들의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그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와 같고, 거목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시
인도 온 나라에 폭풍 구름이 몰아쳐 하늘을 덮어도 믿음을 갖
고 실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라 자손인 시인은 과거에 조상
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도 그렇
게 역사해 주셔야, 후손들이 또 지금의 역사를 돌아보고 동일하

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정도로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때가 히스기야 때 산헤립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였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산헤립의 군대를 쳤습니다. 그날에 죽은 산헤립의 군인들의 숫자가 18만 5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이 분명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하고,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에, 일터(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어주셨습니다. 혹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달라, 우리가 가는 길에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그런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하게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을 따라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인 시인은 현재의 상황이 참 처절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주 급함에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신 역사,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어기거나 주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저희는 압니다. 산헤립의 침략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혹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시인과 비슷하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분명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은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역사하지 않으신 때가 없음을 압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 폭풍 구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 있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패역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고라 자손인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렷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2. 시인은 국가적이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한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신앙의 이력 가운데,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말씀의 길, 순종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임에도 폭풍 구름이 있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5:1~17

[고라 자손의 마스크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
 씨가 뛰어난 서기관과 같도다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
 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3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
 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6 하나님이어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7 왕은 정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
 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
 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9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
 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0 딸이
 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지어다 11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
 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2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
 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13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

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14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 이라 15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6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과 마스길(교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곡조(멜로디)를 ‘소산님’에 맞추어서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산님’은 시편의 표제로 세 번(45편, 69편, 80편) 나옵니다. 성경 아래에 보시면 ‘백합화 곡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합화’의 꽃말이 ‘순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소산님에 맞추어서 하는 연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들었을 때 청초한 느낌이나 상큼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왕의 축하’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편 속의 아가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배경되는 왕이 누구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신랑은 솔로몬일 것이고, 신부는 애굽 바로의 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노래(1~8)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온갖 덕담이 쏟아집니다. 결혼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_인간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결혼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왕의 결혼이겠습니까? 지난 5월 19일에 영국 해리 왕자와 배우 매건 마클과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런던까지는 비행기로 12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사실 그 혼인이 우리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언론도 상세히 보도합니다. 왕자의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에 왕이 혼인할 때 축사를 쓰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 중의 한 명이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도 왕의 결혼식에 글을 올리는데, 글을 잘 쓰는 서기관(선비)이 글을 쓰듯이 축사를 써서 올린다고 합니다.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의 인품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머금다’의 문자적인 뜻은 ‘붓다’, ‘쏟다’입니다.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왕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입에서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입에서 은혜의 말이 줄줄 흘러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박복(薄福)_복이 없음’의 대명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역순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이 솔로몬이라면, 그도 하나님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은 왕의 모습에 대한 고백입니다.

(3~5)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운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우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번에는 왕을 가리켜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한글성경에는 ‘능한 자’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는 ‘강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고,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각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가 나와 1:1로 싸우곤 했는데, 왕이 최고의 군인으로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승리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세워야 할 것, 왕이 전쟁을 치르는 대의명분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합니다. ‘진리’는 ‘진실’과 ‘견고함’을 뜻합니다. 왕에게 따라야 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을 뜻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군림하려고 하지 않음이 바른 통치의 힘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을 닮음’에서 오는 공평과 공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춘 통치자는 바른 것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맹함과 올바름을 갖춘 왕의 화살은 어떤 원수라도 물리치는 최종병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6~7)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셨기에, 왕의 ‘규’는 공
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권
을 상징하는 지시봉이나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갖추어야 할 것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최고 통치자는 물론 다스리는 위치에 있
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 중 하나는 ‘공평_올바른 평
등’입니다. 공평 후에 나눔과 배려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공평이
사라지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고, 사람들 속에 있는 욕
망의 악이 판을 치게 됩니다.

왕비에 대한 노래(9~15)

9절부터 신부인 왕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0~12)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신부에게 권면하는 것은 “네 민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잇으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이방인을 맞이할 때의 규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혹 전쟁을 치르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 그녀를 아내로 맞을 때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달의 말미를 주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부인 왕비에게 자기 민족과 아버지의 집을 잇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면, 새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신부임에도 이전의 삶을 떠나지 못하거나 왔다갔다한다면, 우리는 주님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패역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13~15)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하다

내가 이전에 비천한 존재였고,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할지라도 왕비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이전에 바보 온달과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공주와 결혼하는 순간에 왕궁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왕의 딸)도 왕과 결혼한 순간에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왕을 뵈러갈 때 뒤에 시녀들이 줄을 잇습니다. 시녀들은 왕비를 모실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왕가를 향한 축복(16~17)

오늘의 시편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축복하며 막을 내립니다.

(16~17)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과 왕비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

위를 이어가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대대로 찬송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시는 왕의 결혼 축하시이지만,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본문의 왕의 이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왕비인 신부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넣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신앙의 시를 쓰면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왕의 결혼식이 있게 되었을 때, 뛰어난 문장가가 축하의 시를 쓰면 이와 유사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한 친구의 결혼에 축하의 글을 쓸 때도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글을 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처음 쓰였을 때는 왕의 결혼식이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이 솔로몬이었다 할지라도(심지어 아합이나 요람이라 보는 학자도 있음), 그는 이 시편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속적으로 최고의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꽃보다도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식(결혼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인 것 알죠?”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축하의 말보다 더 중요하는 것은 실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에,

일터(학교)에, 삶의 자리에 심어주심은 화려한 말의 삶보다 성실한 행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의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신앙인이 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길이 아닌 믿음이 있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삶의 신앙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말의 신앙인이 되기보다, 신실한 행동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만족하지 하지 않게 하시고, 신부다운 신부가 되어 절제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나 자식으로서 말의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믿음이 없음과 패역의 옷을 벗고, 믿음이 있음과 순종의 옷을 입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신랑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최근에 당신에게 베풀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를 지금보다 더 구별된 곳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새벽에 도우리로다

시편 46:1~11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뭇에 맞춘 노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3 바닷
 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
 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
 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6 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로다 (셀라) 8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불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
 드셨도다 9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어 활을 꺾고 창을 끊으
 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
 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
 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
 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 본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뭇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뭇’은 시편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라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젊은 여인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알라뭇’이 역대상 5:20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인들의 노래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여인들이 높은 소리로 불렀던 노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47편, 48편과 더불어 동일한 배경 아래 지어진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13~16절의 내용인, 앗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어주어야 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_환난 중에(1~3)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선 공동체의 고백이고, 온 민족의 고백입니다. ‘피난처’는 ‘비바람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산에서 만나는 위협을 피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일지 단거리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닌, ‘장애물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인생의 중간중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라톤 인생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장애물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그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또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지, 피해가야 하는지, 없애고 가야 하는지 등 이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꼭 치우고 가야 할 때,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도 다 다릅니다. 또한 인생길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 자신이 날아갈 정도 일 때는 그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도적 때와 같은 무리가 지나갈 때도 맞서지 않고 둘러서 가든지, 숨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길을 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비바람과 위험을 피하는 최상의 장소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도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

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말하길,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것을 세례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자 종의 신분이었지만, 홍해를 건너 순간에 가나안에 속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무생물인 바위가 따라 다닌 듯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있게 한 것을, 마치 반석이 따라다니며 물을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해석하여 수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반석은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실 분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 외에 설명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또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어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 살 때, 태풍이 휘몰아칠 때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도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 문제는 바람의 세기나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였습니다. 인생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높고 낮은 파도가칩니다. 깊고 얇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 현상이 크게 보이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_하나님의 성(4~7)

3절 마지막에 ‘셀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71번 나오는 셀라는 음악적 지시어이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쉬어라”, “올려라”의 의미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시편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고,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말하던 시인은 셀라 후에 4절부터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말하는 2~3절이 음악용어로 ‘포르티시시모_더욱더 세게, 소리를 질러서’라고 한다면, 시냇물을 말하는 4절은 ‘피아니시시모_더욱더 여리게, 속삭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회에 앉아 있으면 ‘포르테_크게, 강하게’보다 ‘피아노_약하게, 여리게’가 훨씬 더 크게, 더 깊이 들리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험이 아닙니다.

(4~5)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축이 뒤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 안이 안전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피난처입니다.

또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는 시간이므로 새벽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새

벽은 단지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끝과 밝음의 시작’을 뜻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편이 산헤립의 침략이 배경이라면, 앗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 진영에 있던 군사 18만 50000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송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 군사를 치신 일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확인한 시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군대는 다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행하셔서 이른 아침에 승리를 보게 하셨듯이, 비록 우리는 잠들어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7) 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아굽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왕국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산헤립의 침략을 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 번 내시니 땅이 녹아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작열하는 태양빛 아래에 두면 이내 녹아버리고 말듯이, 산헤립의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_전쟁을 쉬게하심(8~11)

시인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8~9)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앗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도 활을 꺾고 창을 끊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0~11)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아굽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가 매 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입니다. 이 말씀은 문을 여는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문을 닫는 마지막절 11

절에도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라는 찬송을 지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던 중세 사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911테러 10주년을 맞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도사로,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편 46편을 읽고서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911의 상처와 전쟁과 분쟁을 이기자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가치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편 46편이 쓰일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 서 있는 곳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은 파도가 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외부가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이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는 비록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입만이 아닌 손과 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믿음이 있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나온 삶에서 폭풍이 불고, 온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2.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새벽에 도우신 것 같은 일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러하셨습니까?
3.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겨 하나님께 피하였다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았다가 낭패를 당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рода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편 47:1~9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2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3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4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5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어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8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
 못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어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며,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 혹은 즉위시로 불립니다. 왕권 찬양시는 오늘 본문인 47편과 93편, 96~99편이 있습니다. 신년절인 1월 1일과 2일 예배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권을 찬양하

는 47편이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때 사용되었다는 것은 온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1~4)

시편 47편 전반부는 만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며 기쁨의 환호성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감정의 분출을 표현하는 박수를 넘어서 왕위에 등극하는 지존자를 향한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는 요아스 왕자가 왕위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건네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온 백성들은 박수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거행식을 치를 때 박수를 친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점을 보아, 시편 47편 1절의 손바닥을 치는 행동은 단순한 격려와 축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2)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십니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은 여러 왕들 중 권세가 더 나은 왕이 아닌 감히 견줄 수 없는 절대자를 말합니다.

(3~4)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아랍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시고 영화로운 기업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46편 묵상에서 시편 46, 47, 48편이 같은 배경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앗수르의 산헤립이 공격하던 국가적 위기였음이 언급되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앗수르의 군사 18만 5000명이 순식간에 몰살당함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앗수르에 비교하여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뛰어난 지략과 전투력으로 올린 성과가 아니라 오직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의 본문 3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동사 ‘복종하게 하시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야드베르’입니다.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복종하게 하다, 질서를 되찾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의 ‘야드베르’가 미래시제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단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힘이 없고 약소한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힘을 겨루기에 턱없이 보이는 강대국의 무릎을 꿇리시며 영화로운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찬양하라고 시편 47편 전 반부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5~9)

5~9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함은 보좌에 앉으심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사람들이 시온 산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행진의 묘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궤를 메어오니라’(삼하 6:15).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였고 다윗 왕은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 그리하여 나의 삶과 인생의 주

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은 평생 동안 견지해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춤추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꺼이 복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6)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은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 표현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찬송하라’ 단어가 네 번 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를 넘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철칙으로 받아들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함은 그토록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7~9)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듭니다. 세상 모든 방패는 군사, 군대를 의미하며 땅에 존재하는 지도자들과 군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온 세계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어 입술이 있는 모든 이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세속과 방탕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재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업적을 나타내고 권위를 재확인하려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기 주저함이 없는 모습 사람들 간간이 목격합니다. 흑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외면하며 탐욕과 불의와 추악함을 부끄러움없이 과감하게 보여주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음과 패역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시편 47편이 우리 마음 속에 울려퍼집니다. 종래에는 모든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그려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손바닥을 치며 다윗처럼 뛰놀며 춤추는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존자이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소유를 기꺼이 바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심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며 그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터, 찬양의 소리가 가득

올려퍼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영화로운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참된 지도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소유를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이 자비로운 그 다스림 속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속과 방탕 속에 살아가며 믿음이 없음과 패역을 증명하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삶을 살며 순종의 옷을 입음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바닥을 치며 즐거워함이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2.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3. 내가 가진 시간과 생각, 소유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4.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1~14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1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3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4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어 5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9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2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13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것을 민수기 2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증거합니다. 반역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불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중에 성전문지기(대상9:17~19;26:1,19), 찬송하는 자(대하20:19), 빵을 굽는 성전요리사(대상9:31)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여러 성경학자들은 앗수르의 왕 산헤립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을 때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1~8)

(1)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거합니다. 산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유린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졌는데, 앗수르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

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적으로 기도합니다(왕하 19:14~19).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왕하 19:19, 새번역). 히스기야 왕이 말한 그는 앗수르를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 앗수르는 당해 낼 나라가 없었습니다. 앗수르가 지나가는 나라와 땅은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나라마다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의지하여 전쟁했는데 앗수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앗수르, 이름만 들어도 공포였고, 앗수르가 섬기던 신은 이방 나라의 다른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 앗수르가 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앗수르를 포함해서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이었습니다. 눈, 귀, 입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짓 우상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앗수르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천하만국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 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35). 모

두가 잠이 든 깊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였습니다. 출애굽 전 여호와와 밤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셀 수 없는 대군을 거느리고 온 앗수르 군대는 거짓말처럼 다 전멸되었습니다. 동이 튼 이른 새벽에 샘해 보니 정확하게 십팔만 오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2~3)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터가 높았고, 대적들은 높은 터로 인해서 쉽사리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터가 높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산헤립의 대군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성의 기초와 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과 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시온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

을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롬이 우리 가정에 넘칠 것입니다.

(4~7)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방 나라들도 앗수르 군대의 진멸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알았습니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시인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후대에 전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귀로 들었던 내용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9~14)

(9)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생각하였나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성실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11)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열방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12~13)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망대의 숫자는 그 성의 힘과 군사력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망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성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어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

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때 성벽역사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성벽 역사가 끝났을 때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성벽 역사가 끝났음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바로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정을 돌보셨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주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느 세대도 제외되는 일 없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죽을 때까지는 ‘죽음을 넘어서’라는 뜻이며, 의역하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원

히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 자신의 옹덩이에 가두어, 하루하루 썩어문드러지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루 빨리 탈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므로,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더욱 생명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더욱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높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온 천하에 높임 받도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안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바울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므로,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인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망대들을 세어
봄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3.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시편 49:1~20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못 백성들이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라 2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도다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 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도다 5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9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도다 11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3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14 그들은 양 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 그러

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16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17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본문 시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 표제가 붙은 것은 모두 11편이 있는데, 제2권에 7편, 제3권에 4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제2권에 있는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조상 고라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해서, 유독 성전에 머무는 것만 해도 은총임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84:10에 있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입니다. 읽거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른 고라 자손의 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의 권면 (1~4)

본문은 ‘지혜시’로 분류되어,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부유함도 일시적이어서, 의지해야 할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신을 앞에 두고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1~2) 못 백성들이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고라 자손인 시인은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강조’와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듣는다’는 것은 단지 ‘청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은 말을 잘 들어요.” 또는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녀의 청력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유무를 뜻합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들을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듣고 순종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어야 대상이 ‘못 백성’,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말하려는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3~4)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리다

고라 자손인 시인이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마음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즉석에서 나온 것이거나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비유를 자신도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것이라면 자신에게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오묘한 말’에 감격이 커서 수금을 타며 전하겠다고 합니다.

부의 한계(5~15)

(6~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은 올해 현재로 2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그분은 4년 넘게 의식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의 그렇게 많은 재산도, 그를 일으켜 세워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걷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의 재산이 그를 일으켜 세워 건강함을 되찾게 해 준다면, 그의 재산의 절반, 아니 어쩌면 전 재산을 내놓고서라도 건강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재산 20조원도 스스로 걷는 한 걸음의 값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계속해서 대학 시절, 혼자만의 부흥회를 가질 때 불렀던 복음사가 한 곡의 후렴이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귀중해 살 수 없어 이 세상의 금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금으로도 나의 영혼 못 구원해’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가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양이 심히 많아서 현재의 곳간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곳간을 헐

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서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9~11)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보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좀 더 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살았다는 것과 동의어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합니다. 많이 배우고 총명하다고 해서 늦게 찾아가는 법도 없고, 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빨리 찾아가는 법도 없습니다. 또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일정액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할

지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남긴 것이라고는 손가락과 젓가락, 밥그릇과 국그릇이 전부였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을 좀 갖고 가도록 허락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떠나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았을지라도, 반대로 단칸방에서 살았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차지하는 공간은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3~15)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 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서 죽음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를 의지하지 말라(16~20)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19)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으며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도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다

어떤 사람이 막대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가 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는 그도 빈손이 되고, 그가 누렸

던 것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 있을 때는 사람들이 떠받쳐주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죽은 정승이 산 개(犬)만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에 나왔던 말씀이 후렴구처럼 다시 반복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을 결코 살지 말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은 이 땅에서가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자기라는 웅덩이’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그의 목자가 되어서 죽음의 인도를 받기에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삶의 자리에 심으심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다가 자기라는 웅덩이에 자기 생명을 가두어서 죽음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

을 누리며, 누군가를 살리는 연결고리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웅덩이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날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인 시인이 반복하여 강조한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며, 이 땅에서 가졌던 것과 누렸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적든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허락된 생명의 길이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웅덩이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역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이 땅에서 남은 날 가운데 생명의 날을 사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인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누구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소중한가와 어떤 대가로도 바꿀 수 없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그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시편 50:1~23

[아삽의 시]

1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
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
추셨도다 3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
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6 하
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7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 이는 삼림의 짐승
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
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
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

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17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 도둑을 본즉 그와 연
 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 네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알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
 리라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표제는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표
 제에 시편의 기자인 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모두 101편입
 니다. 그중에서 12편이 아삽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73편을 기록
 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삽이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음을 말하여 줍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더불어 3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선견자(대하
 29:30)로도 불린 것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깊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오늘날로 하면 찬양대 지휘자 겸 찬양
 담당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 12편 중에 1편만 제2권에 있고, 나머
 지 11편은 제3권인 73~83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은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바른 제사(1~15)

(1~2) 전능하신 이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삽은 선견자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이십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작은 존재 까지도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만물 안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현존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합니다. ‘온전히’는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가 아닙니다. 숲도 별로 없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모두 온전한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인정이 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았습니

(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드린 제사가 온전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물로 드린 짐승도 온전한 것이었고, 그 짐승으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9~13)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온전한 것이었어도 그것을 받고서 좋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수소나 그들의 짐승 우리에 있는 숫염소를 갖고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10

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숲 속의 못 짐승들과 산 속의 가축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주리는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은 모든 짐승들의 소유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바른 제사(예배)가 되지 못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15)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었던 의미입니다. 혹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 선물이 값비싼 것이기는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 좋은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 더 나아가 내가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쳐다보기도 싫고 불쾌하기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나와 좋은 관계

에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꽃 한 송이만 받아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아니 아무것을 받지 않아도 좋기만 합니다.

‘감사’란 단어는 ‘찬송’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동의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흐르는 때는 지금의 나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머물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수용이 되면, 그때 감사와 찬송이 올라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함부로 서원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는 것은, 서원의 내용에 초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을 드렸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그런 형식적인 관계 속에는 있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적 신앙인에 대한 경계와 권면(16~23)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인 제사를 드리고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16~21)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알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와 자기 가방을 뒤로 휙 던지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는, 도둑들과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을 부풀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벌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생활화도 형식적이었고, 생활의 예배화는 흔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제물을 좋은 것으로 드렸으니, 더 이상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테니까요.”라고 말하

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은 내 어려움을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제사를 드렸다 정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웅덩이에 빠져 인생이 썩어 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로 제사(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온전한 짐승을 제물로 제사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끝냈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기 된 것과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월함이나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임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는 예배의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 자기 웅덩이에 빠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예배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만민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나의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만 해도 되었다고 만족했습니다. 나의 예배의 삶 가운데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감사를 제사(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않고,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